

2013년, 보스톤 지역 한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은 뉴스는?



▶▶1면에 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현 한인회장이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내년에 한인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뉴스는 2위로 오를 만큼 대부분의 컬럼니스트들과 기자들이 높은 점수를 주긴 했으나, 보스톤 마라톤이 테러 사건인만큼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한인문화단체의 활발한 활동 덕에 한인들의 문화적 체험이 풍성해진 소식은 3위를 차지했다.

주로 골프를 여가생활로 즐기던 보스톤 한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준만큼 상위 점수를 받은 것.

이 뉴스를 1위로 선정한 김은한 박사는 “문화와 삶의 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사고와 행위를 도울뿐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 박사는 또한 “지역 문화행사를 위해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함께 들어준 짐의 무게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4위로 오른 뉴스는 오바마 케어 가입이 시작됐지만 웹사이트의 장애로

한인들이 곤란을 겪는 뉴스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문턱이 높았던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기대되는 소식이었던 반면, 웹사이트 가입의 장애도 문제였다. 하지만 정작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보 부족 또한 심각한 수준임이 들어났고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보스톤봉사회와 협력해 12월 29일 가입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소식을 1위로 꼽은 선유당의 이선영 원장은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의료인의 한명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 (비록 가입의 문제를 알고 있던 하지만 중국적으로는) “많은 한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점을 비롯해 한인비즈니스 개업 풍년 소식은 오바마 의료보험 가입 난관 소식과 근소한 차이로 5위를 기록했다.

한인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지 않은 보스톤의 특성상 한인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소식으로, 추후 보스톤에 처음 온 한인들에게 정보 가치가 되는 뉴스

다.

이어 싸이 하버드 강연은 6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스타의 반열에 오른 싸이가 열등생이었던 자신의 성공담을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진솔하게 밝힌 것은 ‘인생의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반증을 보인 것이라 더욱 화제가 됐다.

서블릿 광고주 유학생들을 노린 체크사기가 기승을 떨었던 소식은 7위에 올랐다.

오래전부터 이름만 바뀌가며 접근해 오는 전형적인 수법임에도 마수에 걸려들 뻔하거나 당한 유학생이 적지 않았던 을 한해다. 아무리 SNS 시대라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한 뉴스다.

서블릿 사기 소식에 이어 매사추세츠 주에 한국유학생이 증가했다는 소식은 8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유학생이 증가한 데 반해 한국 유학생은 감소한 상황에서의 반전이라 더욱 흥미로웠다. 교육의 도시로 상징되는 보스톤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뉴스다.

한편, 남북간장 고조로 인해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한인사회에 관심을 집중한 소식은 9위를 기록했다. 김정일 사망 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만큼 긴박했던 남북 정세였다.

마지막으로 10위에 오른 뉴스는 ‘보스톤 시 선거와 원덕수 씨가 시의원에 출마’ 한 소식이다. 보스톤 시장 선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시의원 선거 입후보자들 간 선거 운동 또한 맹렬했다. 샘윤의 자취를 기억하는 한인들에게는 한인 후보자가 나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시청 공무원직에 있는 원덕수 씨는 한인커뮤니티에 선거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고 결국 낙선했다.

1. 보스톤마라톤 테러



전세계를 경악케 한 사상초유의 마라톤 테러가 보스톤에서 발생, 올해 보스톤 한인사회 최대 뉴스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 뉴스로도 꼽혔다. 덕분에 보스톤은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거

론된 화제의 도시로 등극했을 정도. 지난 4월 15일 개최된 117회 보스톤 마라톤 현장에는 한인 참가자와 동반 가족들이 40~50여명 있었으나, 다행히 그들 중 피해자는 없었다.

하지만, 보스톤에 어학연수차 왔던 피해자 안동식 군이 친구들과 마라톤을 구경갔다가 파편에 하벅지가 관통되는 사고를 겪었다. 안 군은 긴급 후송, 두 차례 수술 후 회복됐다.



한인사회에서는 안 군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일었고, 총 2,640불이 모여져 안 군에게 전달됐다.

보스톤 마라톤 테러는 첫 주자가 출발한 지 5시간 가량 지난 후 결승선 부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이리온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에서 2차례의 폭발이 일었고, 현장에서 8살의 어린아이를 비롯한 세 명의 젊은 녀이 희생되었다. 이후 부상자가 속출했다.



2. 한인회, 1000명 회비 납부 달성

38대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한선우 회장 체제로 돌입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한인들의 결집을 기치로 내걸고 1,000명 회비 납부 운동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지난 10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다. 한선우 회장에 의하면 1,000명 모두 20불씩을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 소속으로 명단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한인회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 외면하지 않았다.

38대 한인회의 이러한 노력은 역대 한인회 중 가장 많은 회비 납부 회원을 기록한 것에 더해 가장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한인회에 집중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3. 한인 전문인 문화단체 활발한 활동, 한인들 문화체험 풍성



올해는 보스톤 한인들이 문화적인 안목을 키우기에 더할나위 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던 해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와 보스톤 화음챔버 오케스트라 등 전문적인 예술인들로 구성된 문화단체가 풍성한 문화 행사를 펼친 것.

박진욱 지휘자와 장수인 단장이 이끄는 보스톤 화음챔버 오케스트라는 올 3월 창단 연주회를 통해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1위를 수상한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와 협업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씨와의 협연을 통해 지역 한인들에게 정통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보스톤한미예술협회는 3월 창단기념으로 한국 전통 국악인들의 공연을 개최했으며 12월 초 백혜선(피아노), 김이선(첼로) 니콜라스키친(바이올린), 한준영(미국명 준 한, 하프), 줄리안 리(비올라)의 무대를 마련, 청중 500여명을 동원하는 성황을 이뤘다.

지역 한인들은 유명 한인 음악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던 한편, 유명 한인음악인들은 한결음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셈.

한편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보스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미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 가려져 있는 예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했다.

예술협회는 이외에도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보스톤어린이박물관과 연계, 한국문화 알리기에 나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예술협회는 이외에도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보스톤어린이박물관과 연계, 한국문화 알리기에 나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4. 오바마케어 가입 난관, 한인들 혼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가입이 10월부터 시작됐지만, 매스헬스 커넥터 웹사이트에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적신호에 걸렸다.

헬스 커넥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및 전화상담원의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속히 해결될 기미는 없는 가운데, 가입을 시도했던 한인들은 개인 정보 입력부터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한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손 놓고 있는 상황, 이에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보스톤봉사사회와 협력해 12월 29일 보험가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5. 프랜차이즈점 비롯 한인비즈니스 개업 풍년

경제 불황의 틈새를 헤치고 한인 비즈니스가 속속 생겨난 것 또한 올해 한인사회의 주목할만한 뉴스다.

이들 비즈니스의 공통된 특징은 주 고객이 한인에서 아시안, 넓게는 미국인 모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점으로는 청담어학원(뉴튼)과 재능교육(벌링턴), 우기아트, 코코호도(벌링턴 몰), 가주 순두부(허버드스퀘어), 짝(결혼 중매업체)이 보스톤에 입성했으며, 새로 개업한 곳은 나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최선희 SunHee Choi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최선희 SunHee Choi
조태령 TaeYoung Cho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정중희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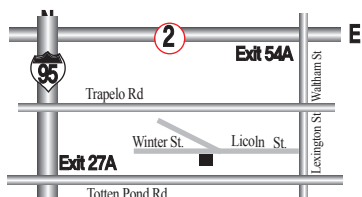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7, 2013

Class	Time
PSAT/SAT Prep (Grade 11)	9:00AM - 11:00PM Saturday
PSAT/SAT Prep (Grade 10)	11:30AM - 1:00PM Saturday
Reading/Math (Grade 9)	1:30PM - 3:00PM Saturday
SAT Prep (Grade 12)	4:00PM - 6:00PM Saturday
One on One Tutoring	3:00PM - 10:00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무 부동산, 가족물리치료병원, 1st 초이스 덴탈그룹, 은혜한의원 등이다. 기존의 동종 업체를 인수받아 상호와 메뉴를 바꾼 곳은 비빔(구 칼라), 서울설렁탕(구 유미)이다.

6위



6. 사이 하버드 강연, 성공담으로 웃음 바다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가 지난 5월 보스턴을 방문해 자신의 성공담에 얽힌 이야기를 재치있고 솔직하게 밝혀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든 한편, 깊은 감동을 줬다.

하버드 한국학회가 주관한 사이의 초청 강연은 하버드 학생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당초 200여명 입장이 가능한 하버드 사이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만에 입장권 신청 웹사이트에 1,6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장소를 메모리얼 교회로 급변경, 하버드라고 피해갈 수 없는 사이의 인기를 실감시켜 줬다.

비단 유학생뿐 아니라 초보 민박집 주인이기도 했다. 올해 3,000불 이상의 피해를 입은 한인 및 유학생이 밝혀진 것만도 벌써 2건.

FBI가 개입했지만, 이름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마수를 뻗는 이들의 사기행각은 좀체 사그러 들지 않는다.

7위



7. 서블릿 사기 기승

서블릿, 룸메이트 등의 광고를 내는 유학생 상대 체크사기가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끊임없이 사기 메일을 보내오는 사기꾼은 특히 방학을 이용해 서블릿이나 룸메이트를 구하려는 유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노렸다.

주로 자신을 ‘샌드라 김 또는 샌드라 박’ 등 한인 2세로 자칭하는 사기꾼은 보스턴코리아 웹사이트나 크레딧리스트 등에 올린 서블릿 광고를 보고 이메일로 접근, 방값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체크로 보내고 차액을 송금해 달라는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

사기꾼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는

8위



8. MA주 유학생 증가, 미주 한국 유학생 감소와 대조적

올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82만여 명)한데 비해 한국 유학생 수는 2.3% 감소(70,627)한 추세를 보인 반면, 매사추세츠 주 한국인 유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기도 해, 대학이 밀집해 있고 명문대학 역시 많은 보스턴이 그 명성을 다시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치는 비영리 기관인 국제교육원(IIE)과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어학연수생 및 대학, 대학원생, 그리고 OPT기간 중인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매사추세츠 주에는 총 46,486명의 유학생 중 3,068명의 한

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유학생 증가율(12.7%)을 보인 주이기도 하다.

9위



9. 남북 긴장 고조, 미국언론 한인사회 관심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 3월 8일 남북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의 단절을 선언한데 이어 4월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 긴장 상황을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켰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앞다퉈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하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집중했다.

당시 미 언론들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정은은 권력의 전면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 세대교체, 군 간부 교체

등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더니 급기야 12월 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 음모 혐의 등으로 전격 처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또 다시 세계 언론을 비롯한 미 언론들의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다.

10위



10. 보스턴 시 선거, 원덕수 시의원 출마

보스턴 시장 낙선 후 보스턴을 떠난 샘윤의 뒤를 잇고자 보스턴 시의원 선거에 한인 원덕수 씨가 출마, 한인들의 관심은 끝났으나 끝내 낙선하고 말았다.

원덕수 씨는 보스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에 상당히 신중함을 보여 한인사회에 제대로 선거유세 한번 못해보고 투표를 맞았다.

대신, 뉴잉글랜드한인시민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한인사회에 적극 지원을 호소했던 중국계 미국인 미셸 우가 아시아안으로서는 유일하게 시의원 자리에 올랐다.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2013년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최다 조회 기사 1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해도 보스톤코리아닷컴의 최다 조회 기사는 보스톤코리아의 10대뉴스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보스톤 마라톤 테러 소식이 베스트 10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뉴스의 주 소비층이 유학생들이며 세계에서 보스톤이란 지역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찾아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웹뉴스의 경우 가장 지역적 특성을 잘 드러내거나 생활 밀접형 기사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랍스터 풍년 소식, 슈퍼마켓 소식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 준다.

날씨 뉴스와 오랜만에 개봉하는 한국영화 뉴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칼럼 <편집국에서>의 '남북정상의 민낯 회담록'의 조회가 높았던 것은 한국과 미 한인사회의 관심이 동일 선상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editor@bostonkorea.com

2013년 보스톤코리아 최다 조회 기사 순위

1. 올해도 랍스터 풍년, 저렴한 가격 계속된다
한새벽 기자 (33,946회)
2. 남북 정상의 민낯 회담록을 들여다 보고
편집국에서 (32,574회)
3. 한국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26일 보스톤 개봉 김현천 기자 (24,372회)
4. 슈퍼마켓 경쟁 가열된다 김현천 기자 (7,239회)
5. 대형 푸드마켓 웨그먼스 보스톤에 첫 지점 오픈 오현숙 기자 (6,347회)
6. 보스톤, 찜통 더위 한 주 계속될 듯 김리사 인턴기자 (5,555회)
7. Shaw's, 가격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오현숙 기자 (5,492회)
8. 지하철 운전사 근무 중 낮잠 정성일 기자 (5,405회)
9. 계속되는 선거에 지친 매사추세츠 정성일 기자 (5,242회)
10. 보스톤 레드삭스의 트레이드 소문들 정성일 기자 (5,137회)



보스톤코리아 <보스토티안> 2014년 판 발간, 배포

한인업소록 한층 보강, 학교 및 의료 서비스 집중조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지역의 생활정보를 알차게 엮어낸 백과사전식 생활정보 책 <보스토티안> 2014년 판이 발간, 보스톤 지역 한인 식품점을 중심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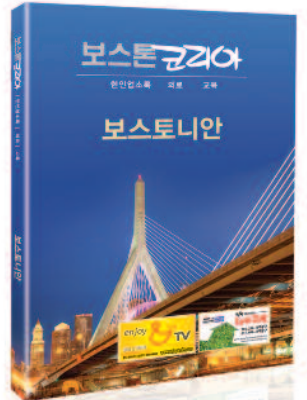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된 <보스토티안> 2014년 판은 2012년 발간된 보스토티안 책자를 기본 골격으로 더욱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실었다. 과거 매사추세츠 주 정보만 담았던 한계성에서 벗어나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의 정보까지 함께 담았다.

이번 <보스토티안 2014>판에서는 한인업소록이 한층 보강됐으며, 공사립 학교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업소록에는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 뉴잉글랜드 지역 각 주 각 업소의 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 연락처 등의 정보도 함께 담아 지역 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학교와 학군에 대해 집중 조명, 보스톤 지역 최우수 학교의 자세한 정보 및 진학률이 우수한 학군을 다뤘으며 데이스쿨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차터스쿨 등 공립학교 입학 및 교육 방식 등에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오바



마케어가 매사추세츠 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매스헬스, 커먼웰스케어 등 건강보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오바마 케어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는 "보스톤에 정착하려는 사람, 자녀를 둔 학부모, 그리고 기존의 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었다"며 "약 1년의 준비과정 끝에 발간됐다. 발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ASC English

ASC Boston #1 ESL School

ASC학원은 연방법에 의해 비 이민자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허가업체입니다. 본 학원은 외국 학생, 지역 편입학 학생, 신분변경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ASC프로그램은 보스톤 여러 대학에서 인정해 입학시 토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Lively Group Discussions



The Most Experienced Teachers



State of the art Learning Environment

무료 청강 가능
매월 신규반 시작

- 집중 영어회화
- iBT 토플
- 기초반
- 집중 SAT 반
- 회화반
- 종합 작문
- 비즈니스 영어

ASC만의 혜택
외국학생들을 위한 현대식 교육환경
대입 교육 / 원어민 강사들과 대화의 자리
대입 지원서 카운슬링 / 무료 에세이 편집
대학 입학 보장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음
전화요망 : 617.730.3705, 617.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ASC English
Locatio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Downtown Campus: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2013 사라진 한인 업소, “아쉬움만 남기네”

유미, 가야, 샤부야, 야미, 우리식품 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늘 새해가 시작된 때는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듯이,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여지없이 다사다난했다고 한다.

보스톤 한인사회 역시 지난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쁜 일 못지않게 어렵고 곤란한 일이 많았다.

그중 정말 아쉬운 일 중 하나는 한인 업소가 문을 닫는 일이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일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스러져 가는 이민자의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 이 지역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일구고 있는 한인들의 발자취는 분명 다음 세대 한인들에게 교훈으로 남을 터. 올 한해를 마감하며 올해 사라져간 한인업소를 돌아봤다.

스톤햄19 Franklin St.에 자리하고 있던 유미(U·ME)는 한식, 일식, 타이스이 모두 제공 되는 아시안 음식점이었다.

임미영(55세) 대표가 2009년부터 운영해 오던 중 외국인이 인수해 상호와 메뉴 등을 변경해 운영한다.

카테일바(BAR)와 스시바를 갖추고 있었던 곳으로,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세련됐던 평을 들었다.

케이브리지 1924 Massachusetts Ave.에 소재했던 한, 일식당 가야는 최초의 한인 운영 호텔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때문에 문을 닫은 곳이다.

지난 8월 15일로 영업을 마무리한 가야식당은 10년이 넘는 전통을 지녔던 곳으로, 김민수 대표가 운영해 왔다.

300석이 넘는 널찍한 실내에 70여명 규모의 연회장을 마련할 만큼 넓은 공간이 카테일 바와 함께 마련돼 있었으며, 편안하게 신발 벗고 들어 앉아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다미방도 8개나 됐다. 주차공간 또한 넓직해 주로 한인 단체들 모임 장소로 많이 이용됐던 곳이다.

젊음과 지성,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거리 하버드 스퀘어(57 JFK Street Cambridge)에서 일식 및 샤부샤부, 한식 등을 제공했던 샤부야는 윤광현 대표가 운영했던 곳으로, 지난 10월 문을 닫았다.

모던한 실내 디자인이 분위기 좋은 카페를 연상시켰던 이 곳은 120석 규모의 큰 음식점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아 거주순두부로 바뀌었다.

지난 해 처갓집 양념치킨을 인수해

hckim@bostonkorea.com



사라진 한인 업소들 (좌측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칼라분식, 유미, 우리식품, 샤부야, 가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동요대회

함박눈과 어우러져 울려 퍼진 아이들의 동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성탄절을 앞둔 지난 14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대회가 뉴튼에 소재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독창, 중창 및 합창부문 등에 모두 40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렇게 살아갈래요’를 부른 이해린 학생과 ‘웃음소리’를 부른 송연 학생이 각각 독창 전체 대상 및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합창(1) 부문에서는 ‘씩트네 썩터요’를 부른 가을-겨울반과 ‘꼬부랑 할머니’를 부른 사계절반이 공동 대상을 받았고, 합창(2)부문의 대상은 ‘독도는 우리 땅’과 ‘거위의 꿈’을 부른 조선반과 ‘정글숲, 달달 무슨달’을 부른 달님반이 수상했다.

한편, 독창부문(기초1-2) 대상은 ‘피노키오’를 부른 한겸 학생이 받았고, 독창부문(3)의 대상은 ‘아기다람쥐 꼬미’를 부른 전지명 학생과 ‘웃음소리’를 부른 송연 학생이 받았다. 독창부문(4)의 대상은 ‘내마음 속 꿈나라’를 부른 원준식 학생이, 독창부문(초급이상) 대상은 ‘초록빛 바다’를 부른 전혜나, ‘노을’을 부른 정동현 학생이 공동 수상했다.

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던 중창 부문(가족)에서는 최재민-재윤 팀이 아빠와 함께 ‘보라’를 불러 최고 점수로 대상 및 학부모회장상을 받았고, 중창부문(친구와 함께) 대상은 ‘내마음 속 꿈나라’를 부른 강은서-조유서 팀에게 돌아갔다.

이번 동요대회 심사는 이현주 학



독창부문3 참가자



독창부문4 참가자



독창부문4 참가자

부모회 회장, 소프라노 조유미, 조상욱, 박진욱 지휘자와 졸업생들이 맡았다.

조유미 심사위원은 “2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자체도 기쁘고 놀라웠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다 그것도 한글로 이렇게 잘 부른다는 것은 그 뜻을 이해한다는 의미여서 더 기뻐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안길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 회계사 (C. P. A.)

정진수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한인회 연말 파티 풍성한 시상

‘보스톤 한인회’ 명칭 변경 공표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38대 뉴잉글랜드 한인회(회장 한선우)가 지역한인들과 송구영신을 기념하며 화합의 장을 열었다.

지난 15일 일요일 우편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한인회 연말파티에는 간밤에 내린 폭설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한인들이 모여 송년의 밤을 보냈다.

이날 파티에는 박강호 총영사 내외와 박중석 영사 내외가 참석했으며, 단체인으로는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 백옥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이학렬 노인회장, 남궁연 한인회관 재산관리 위원장, 안병학 미동북부 한인연합회장, 이재형 NE 과기협회장, 한순용 한글학교 뉴잉글랜드 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줬다.

또한 북부보스톤한인감리교회의 김

용환 목사와 보스톤한인교회의 이영길 목사도 교인들과 참석해 한인회를 응원했다.

한인회는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한인으로 선정한 북부보스톤한인감리교회의 박석만 장로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보스톤한인합창단에 단체상을 수여했다. 또한 코리아나 식당의 김영숙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박강호 총영사는 이학렬 노인회장에게 총영사상을 수여했으며, 한선우 한인회장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로부터 수여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한선우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비 납부회원 1000명 시대를 가능케 해준 한인들께 감사한다.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은 모든 한인들이 참여할 때 가능하다” 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강호 총영사 또한 지난 한해 한인회의 노고를 높이 사며 한인사회 또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인회는 이날 예상과 달리 한인회 명칭을 ‘보스톤한인회’ 로 변경한다는 공표를 하지 않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인들은 뷔페식 식사와 함께 파티를 즐겼으며, 래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들을 받았다.

올 경품 중 가장 큰 김치냉장고는 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의 이재형 회장이 받았다. 이 회장은 받은 경품을 모두 한인회와 타단체에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후문이다.

hckim@bostonkorea.com

한인업소 곳곳 새해 달력 배포

H 마트, 릴라이어블, 청계 등 한인식품점 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인운영 업소들이 마련한 새해 달력이 타운 곳곳에 배포되고 있다.

지난 몇년 간 불경기로 인해 달력 제작이 뜸했던 한인 업소들이 올해는 탁상용, 벽걸이형 달력을 제작해 모처럼 경기가 되살아나는 듯한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는 곳은 H 마트와 뉴스타 부동산, 그리고 정관장이 대표적이다. 세 업소 모두 탁상용을 제작 이미 배포가 한창이다.

한인식품점으로는 릴라이어블과 청계도 올해 달력을 제작했다. 청계는 이미 벽걸이 형을 배포하고 있



며, 릴라이어블은 이번 주말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벽걸이형 달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인식당 중에는 야수가 탁상용을 제작, 도착하는데로 배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로드아일랜드한인회 연말파티

신구회장 이취임식 겸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오는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Knights of

Columbus (2nd flr)에서 연말 파티를 개최한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이날 신입 회장으로 선출된 이동문 씨의 취임식과 백옥진 회장의 이임식을 겸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401-

368-0467으로 하면 된다. **일시:**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Knights of Columbus (2nd flr), 1047 Park Ave., Cranston, RI 02910-3238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한인회 신년 하례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타주 한인회와 달리 송구영신 모임 대신 2014년 1월 18일 신년하례식을 개최한다. 자세한 문

의는 603-767-1356 (박선우)로 하면 된다. **일시:** 2014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Salem (Derry-Salem) Elks Club, 39 Shadow Lake Road, Salem, NH 03079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송년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회장 김상호)가 연말을 맞아 21일 토요일 송년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비교적 가볍고 쉬운 트레일인 MORGAN 산으로, 정상에서 아름다운 SQUAM LAKE를 바라보

며 한해를 돌아 볼 수 있다. 시간사용계획은 B조 기준이며 A조는 30분 일찍, C조는 30분 늦게 출발한다. 김상호 회장은 눈과 얼음이 많은 겨울철에는 microspikes 아이젠을 받

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결지는 올스톤 공영주차장 (0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 07시 15분)이다. 기타문의는 전화 978-569-3256(김상호)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양대 동문회 송년의 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양대 동문회가 지난 7일 뉴튼에 위치한 압구정 식당에서 송년의 밤을 보냈다. 동문회는 새로 참석한 회원들 및 그 가족들을 환영한 후 지난 한해 활동한 임원진의 업무보고를 한 후, 2014년 신입 임원진을 이끌 신입회장으로 정명상 씨를 선출했다. 정명상 신입회장은 “갑작스레 신

임회장직을 맡았으나 동문회의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고 동문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지난 2년간 동문회장을 맡아 봉사해 온 이충시 박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한인 단체에서 봉사해 온 활동 보고를 한 후, 앞으로 상부상조에 더 힘써야겠다는 부탁의 말로 이임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이태리 등 해외에서 활동했던 김동원 바리톤의 공연 동영상 감상이 이어졌으며 허버드 의대 김천기 교수 부부가 듀엣을, 김순호 동문가 독창으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마지막으로 김양길, 박경근 동문을 위시해 동문 모두 합창으로 마음을 모았다.



한편 이번 송년의 밤에는 한양대 임내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피아노 교실 발표회

초보 주부 및 아이들 정성껏 준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피아노교실(원장 이명희)이 1주년 기념으로 정기 연주회(드림콘서트)를 오는 22일 메드포드에 위치한 좋은땅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주부와 어린 자녀들이 초보의 실력이지만 정성껏 준

비한 공연으로, 특히 바쁜 시간을 쪼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주부들에게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 좋은땅한인교회, 400 High St Medford MA 02155 **시간:**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hckim@bostonkorea.com

한인들을 위한 오바마 케어 가입안내

한인회 보스톤봉사회 협력 12월 29일 성요한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뉴잉글랜드한인회와 보스톤봉사회가 공동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보스톤봉사회의 윤희경 회장을 초청, 오는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교회에서 ‘오바마 케어 가입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781) 861-7799 hckim@bostonkorea.com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헤민한의원

PARK Acupuncture & Herbal Medicine

원장: 박미경 (Mikyung Park)

여성질환 (불임, 산후보양, 갱년기장애) 한방다이어트, 소화기질환, 통증 및 운동손상, 알러지, 비염, 천식, 수험생보양 및 허약아 체질개선

“한방다이어트로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도 회복하세요.”

경로무료진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진료예약 : 617-787-0789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http://www.acupark.com>



하버드 폭탄 위협, 시험보기 싫은 한국계 학생 소행

▶▶1면에 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 엘도 김(Elido Kim, 20세)은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군은 기말 고사가 시작하기 30분 전인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에 하버드 대학 경찰서와 하버드 학보 크립슨 등에 이메일을 보냈다.

김군이 보낸 이메일에는 “캠퍼스 주변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며 “2/4 (건물 4곳 중 2곳에 폭탄이 있다는 의미) 잘 추측해봐라. 서두르지 않으면 조만간 폭탄이 터질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 경찰은 즉각 FBI를 불렀고 인근 캠브리지와 보스톤의 경찰, 소방대원, 폭발물 전문가들이 모두 출동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하버드 대학교 캠브리지 캠퍼스에 있는 3개의 강

의동과 1개의 기숙사 건물이 오전부터 폐쇄되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건물에는 폭발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일로 16일에 예정되어 있던 하버드 대학교의 기말 고사는 일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김군이 붙 예정이었던 시험도 취소되었다.

김군은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메일을 보낼 때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다. 그러나 교내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해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결국 달미를 잡히고 말았다.

FBI는 16일 저녁 하버드 기숙사에서 김군을 만나 폭탄 위협 이메일을 보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군은 월요일에 치러질 예

정이었던 기말 시험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김군은 형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폭발물 위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군은 최대 5년의 징역과 출소 후 3년 간의 보호 감찰, 그리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버드 학보 크립슨에 따르면 김군은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한국 서울 출생이다. 고등학교는 워싱턴 주에서 나왔으며 10학년 때 쓴 에세이가 워싱턴 주 최고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다. 김군의 친구들도 조용하지만 똑똑하고 다정한 학생으로 알고 있다며 김군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jsi@bostonkorea.com

하버드 폭파 위협 엘도 김 “한국 국적 취소된 시민권자”

검찰, 하버드 폭파위협 학생 구금 대안 모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총영사관은 하버드 폭파 위협으로 체포된 하버드 학생 엘도 김 군이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라고 확인했다.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특수 영사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김범준 씨는 “엘도 김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취소되며 따라서 미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버드 폭파위협으로 구속된 하버드 2학년생 엘도 김을 두고 연방 검찰은 “구금의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스톤 헤럴드가 18일 밝혔다.

18일 보스톤 지방에선 엘도 김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고교 테니스 티셔츠와 하버드 운동복 차림으로 출두한 엘도 김(20)은 주디스 데인 연방 판사가 피의

자의 권리에 대해 묻자 이해한다고 답했다.

존 케빈 검사보는 법정에서 “현재 변호사와 검찰은 구금의 대안을 의논 중에 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법정에는 보스톤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군은 기말 시험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에 16일 오전 8시 40분께 하버드 경찰, 하버드 행정당국, 그리고 일간지인 크립슨에 폭파위협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시험장이었던 에머슨 홀도 폭파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군은 일회용 메일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IP 계정을 숨기는 방법을 썼지만 경찰은 그가 학교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점을 통해 그를 찾아냈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생 엘도 김, 보석으로 풀려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폭파위협으로 체포됐던 엘도 김(20) 군이 법정 출두 후 보석으로 임시 방면됐다.

주디스 데인 연방 판사는 18일 엘도 김이 보스톤에 거주하는 누나 또는 노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삼촌 집 두 곳중에 한 곳을 영구 거주지로 할 수 있지만 하버드 대학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김군의 변호사인 이안 골드 씨는 김군이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깊숙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김군은 이번 달 자신의 시험

공부와 아버지가 사망한 3주년을 맞아 상당히 힘들어 했었다는 것이다.

데인 판사는 방면 조건으로 1월 10일까지 영구거주지를 정하고 여권을 발급하며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이 같은 방면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은 김군의 방면에 10만불의 무담보 보석금을 책정했다. 김군의 누나와 삼촌이 동시 서명한 이 보석금은 지금 당장 보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예정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시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기말 시험을 기피할 요망으로 폭파 위협을 보냈다 하버드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임시 방면된 엘도 김군

성진우 카이로프랙틱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증을 느끼십니까?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
- 두통
- 어깨, 둔부, 무릎 통증
- 허리와 목 통증
- 좌골 신경통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6 Merrimack Street
Methuen, MA 01844
(978) 688-6999
www.DrJinSung.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폭행 부른 사우스 보스턴 폭설 후 파킹 문화

30대 청년 66세 할아버지 가격 의식 잃게 만들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사우스 보스턴에서 한 청년이 18일 폭설 후 치운 주차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다 66세의 이웃 할아버지를 폭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완 벨트란 리베라(32)는 66세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왼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응급차에 실려 탑스메디컬 센터로 후송되어 얼굴 타박상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턱 골절을 대비한 치료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완 벨트란 리베라를 노인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싸움은 피해자가 돈을 들여 치우는 주차 자리에 리베라가 주차하면서 발발했다. 피해자는 즉시 리베라에게 달려들어 차를 뺏 것을 요구했고 결국 설전으로 번졌다.

리베라는 경찰에게 논쟁 도중 여러 차례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해 결국 견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번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위협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주차 공간에는 ‘스페이스-세이버(space-saver)’라 불리는 주차를 금지하는 의자, 가구 등의 물건이



눈은 후 스페이스-세이버는 사우스 보스턴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도 불명예스런 전통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놓여있었는지 경찰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보스턴시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폭설 후 항상 다툼이 이는 사우스 보스턴에 그들만의 전통인 ‘스페이스-세이버’를 존중, 폭설비상경보 이후 48시간 동안 유효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화요일 6.4인치를 쏟아 부은 폭설 당시 보스턴시는 폭설비상경보를 내리지 않았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실업률 7.1%, 연방보다 높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실업률이 11월 들어 7.1%로 낮아졌지만 지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미 전국 실업률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실업률은 5개월 연속 7%대를 상회하게 됐다.

11월 한달동안 매사추세츠 주는 민간부문 4,900여 일자리를 비롯 총 6,500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매사추세츠 노동 및 인력개발 행정사무소는 18일 아침 밝혔다. 이로써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2012년 12월 이래 총 46,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재정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교육 및 의료서비스 그리고 주정부 등이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그동안 계속 연방 실업률보다 훨씬 나은 실업률을 보였으나 연방정부의 자동예산 삭감인 시퀘스트레이션 시작된 후 정부 그랜트에 의존하는 국방, 의료, 과학 연구 분야의 인력에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매사추세츠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hsb@bostonkorea.com

혼전 임신 커플 교사 학교에서 해고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로렌스에 위치한 사립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커플이 혼전 임신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커플은 2015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지만 내년 여름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혼전 임신을 이유로 교직에서 사임하게 된 커플이 학생들이 보낸 카드를 읽고 있다

로렌스 캐톨릭 아카데미(Lawrence Catholic Academy)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션 홀리헌과 나탈리 퍼랜드는 올해 3월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10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학교 측에 알렸다.

로렌스 캐톨릭 아카데미의 교장은 이들이 학교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11월 25일자로 해고하였다. 이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프로답지 못하며 기독교인 답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홀리헌과 퍼랜드는 모두 캐톨릭 신자다.

홀리헌과 퍼랜드 커플은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여 해고 사실을 공론화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변호사 앤소니 디프루시아는 무료 변호를 자청하여 로렌스 캐톨릭 아카데미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디프루시아는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로렌스 캐톨릭 아카데미와 협상을 벌였다. 지난 주말 로렌스 캐톨릭 아카데미는 홀리헌과 퍼랜드가 학교에서 “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사임” 했으며, 2013-2014 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두 사람에게 급여와 의료보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변호사 디프루시아는 “내가 보기에 양쪽 모두에게 합당한 해결책이었다. 또한 충분한 기독교적인 방법이였다”며 “해고 사유가 좋아 보여도 법률적으로 합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홀리헌은 학교와의 협상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여기에 승자는 없다. 로렌스 캐톨릭 아카데미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는 교육자 두 명을 잃었다”고 전했다.

jsi@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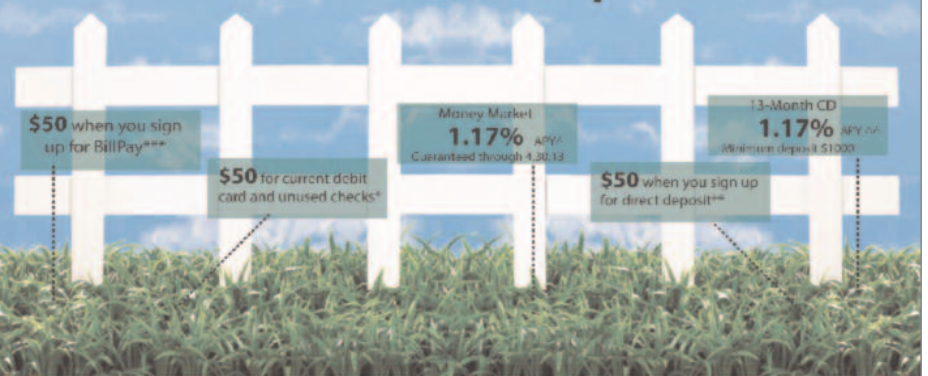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The grass IS greener on our side of the fence...

Switch to Mt. Washington Bank and earn up to \$150!



NOW OPEN IN ALLSTON!

181 Brighton Ave., Allston

Switch to Totally FREE Checking at Mt. Washington Bank and earn up to *\$150! Stop by our Allston office located at 181 Brighton Ave., and we'll help you make the SWITCH to Mt. Washington Bank!

Plus, get a FREE T-Shirt just for stopping by!



See customer only. *We will credit your account \$25 when you bring in your checks and \$25 when you bring in your debit card from your current bank. **\$50 will be credited to your account for direct deposit. ...

뉴잉글랜드 연말연시 이벤트

난롯가 북클럽부터 말이 끄는 썰매까지 다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기자 = 선물 쇼핑에 집안 꾸미기, 여기에 요리까지... 이쯤 되면 크리스마스 휴가가 일년 중 가장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소한 즐거움마저 찾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난롯가에서 열리는 북클럽 이벤트부터 겨울 썰매를 타는 것까지, 여기 소개하는 뉴잉글랜드 홀리데이 이벤트들 중에서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 난터켓 섬의 크리스마스 (Nantucket Noel)

내년 1월까지 스케이팅과 와인시음회, 책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웨일 뮤지엄(Whaling Museum)에서 열리는 나무 축제(Festival of Trees)도 가 볼 만 하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행되는 레드타켓 추첨은 당신에게 행운의 기회가 될 지 모른다. nantucketchamber.org

▶ 오로라 열차 (Northern Lights Express)

“산타 연수를 받으려면 오로라 열차에 타라!” 안과 밖 양쪽으로 빛을 내뿜는 이 열차는 승차해 있는 동안 산

타가 등장하도록 짜여있다. 이달 22일까지 운행되며 예약은 필수. rmne.org

Railroad Museum of New England, 242 E. Main St., Thomaston, 860-283-7245.

▶ 코스텔 메인 보테니컬 가든(The Coastal Maine Botanical Gardens)

250에이커 규모의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하는 이곳은 12월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과 난롯가 북클럽 이벤트를 연다. 무료로 가이드 투어를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문을 닫으니 유의할 것. mainegardens.org

Coastal Maine Botanical Gardens, 132 Botanical Gardens Dr., Boothbay, Maine. 207-633-4333.

▶ 빅토리아 저택 투어(Victoria Mansion holiday tours)

메인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빅토리아 저택은 국가적으로도 유서깊은 랜드마크. 손으로 직접 제작한 가구와 장식용 예술품, 그리고 고유벽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홀리데이 시즌을 위해 꾸진 이 저택은 내년 1월 5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꾸며놓은 빅토리아 저택의 내부

일까지 문을 열고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방문 시 셀프가이드 투어도 가능하다. 입장료는 어른이 15불, 학생과 6-17세는 5불이다. victoriamansion.org

▶ 호두 깨기 인형(The Nutcracker)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홀리데이의 고전작품.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 벌몬트의 퍼포밍 아트센터(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메인의 콜린스 센터(Collins Center for the Arts)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전 지역에 걸쳐 공연된다.

▶ 말이 끄는 썰매 타기(Sleigh rides)

뉴햄프셔 캔디아에 위치한 차밍페어팜(Charmingfare Farm)에서 30분간 말이 끄어주는 썰매타기 이벤트를 열고 있다. 썰매를 타는 동안 길을 따라 이어진 불빛과 크리스마스 풍경들을 즐기면서 코스튬을 입은 캐릭터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 또 아이들이 동물을 만질 수 있는 작은 동물원과 모닥불, 뜨거운 음료와 스낵도 준비되어 있다.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웹사이트에서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visitthefarm.com

Charmingfare Farm, 774 High St., Candia, N.H. 603-483-5623.



차밍페어팜에서 열고 있는 말이 끄는 썰매타기 이벤트

노팬츠 승객에 놀라지 마세요

노팬츠 서브웨이 라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이번 새해에도 가까운 T 승강장으로 맨살을 드러낸 승객들이 몰려들 것이다. 바로 내년 1월 12일에 7번째 “노팬츠 서브웨이 라이드(No Pants Subway Ride:바지 안 입고 지하철 타기)” 행사가 보스톤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수백명의 승객들이 MBTA 탑승해 처음 보는 승객들 가운데 각자의 바지를 벗는 것이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적 이벤트로 자리잡은 “노팬츠 서브웨이 라이드”는 임프로브 에브리웨어(Improv Everywhere)이라는 그룹에 의해 2002년 뉴욕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7명의 친구들 사이에 장난이 었지만 맨 다리를 축하하는 이 행사는 곧 세계로 퍼져나갔다.

보스톤 버전은 “순수하게 재미만을 위한”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인 ‘BostonSOS’가 도입해 보스톤을 일년내내 “좀더 흥미로운 장소”로 만드는 이벤트들 중 하나로 선택했다 이 그룹과, 그리고 거의 누드로 지하철을 타는 이 행사는 그룹 New York City로 부터 영감을 받았다.

MBTA 승객 중 누군가가 갑자기 바지를 벗는다면 대부분의 사람

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심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BostonSOS는 지난 7년간 T 관계자와 함께 독점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보장은 물론이고 체포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행사는 불법이 아니다. 일반적인 속옷은 성적인 노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난해 이벤트 시작을 앞두고 그룹측은 밝혔다. “셔츠를 벗는 등 신체의 '특정 부분'을 노출시키거나 티팬티를 착용하거나 또는 속이 비치는 것을 착용하면 경찰에 체포될 것이며 우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노팬츠 서브웨이 라이드”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그외에 만나는 장소나 애프터파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hsqh@bostonkorea.com



2012년 노팬츠 서브웨이 라이드를 즐기는 참가자들

숫자 퍼즐(Sudoku)

정답

▶▶ 문제는 34면에 있습니다.

5	4	2	1	3	8	9	6	7
7	8	6	5	2	9	1	3	4
1	3	9	6	7	4	2	5	8
9	6	1	3	8	5	7	4	2
4	2	3	9	6	7	8	1	5
8	5	7	4	1	2	6	9	3
6	1	8	7	4	3	5	2	9
3	7	5	2	9	1	4	8	6
2	9	4	8	5	6	3	7	1

대한민국 유일 5대 포털에서 만나는 여성지! USA

레이디경향

레이디경향 미주판이 지금! 광고신청하세요

배포처 접수중
광고문의
617-775-8474

2013 레이디경향 미주 통합판 발행

보스톤, 뉴욕, 뉴저지필라델피아 시카고, LA, 아틀란타 하와이, 달라스, 시애틀

레이디경향 미주판은 '종합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20대 중반에서 60대의 모든 한국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제 및 생활문화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반: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제자훈련: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어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새생활 센터 / 17년간 만민들을 위해 매달 무료 진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IT기업대표들, 오바마에 NSA 개혁 요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의 대표적 첨단 정보기술(IT)기업 대표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도청논란의 핵심인 국가안보국(NSA)의 개혁을 요청했다.

1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5개 미국 IT기업 대표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등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도청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담당하는 NSA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딕 코스톨로 트위터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을 비롯해 넷플릭스, 컴캐스트, 링크트인, 에치, AT&T 등의 CEO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고위 임원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브라질을 비롯한 외국 정부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보 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조치가 구체화하면 미국 업체들의 비즈니스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대표들은 또 정보기관이 정보통신업체에 통신감시 협조를 요청할 때 분

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악관과 IT 기업 대표들은 일단 정부나 IT기업 모두 도청과문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NYT가 전했다.

2시간 40분간 계속된 이날 회동 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 그룹(IT기업 대표들)의 우려와 조언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을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IT기업 대표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발표한 정부 사찰에 대한 원칙을 대통령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을 평가한다"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구글과 애플 등 주요 IT기업 8개사는 '정부 감시활동 개혁 그룹'을 결성하고 정부에 대해 논란에 휘말린 감청활동 체계를 개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회동은 NSA의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16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NSA의 무차별적인 휴

아마존, 푸드 시장 본격 진출 신선식품·지역 식당음식 당일 배송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아마존닷컴'이 푸드 관련 사업 '아마존 프레시'(fresh.amazon.com)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선식품, 지역상품은 물론 50만개 이상의 아마존 제품을 주문 이후 당일 및 매일 아침에 배송하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는 식품의 전자제품, 기저귀, 지역식당

의 RTH(Ready-To-Heat) 식사 등 고객이 원하는 상품도 배달할 예정이다.

배달비용은 100달러 이상 주문할 경우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5년 전부터 시애틀에서 시험 운영되던 '아마존 프레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로 영역을 넓혔고 내년 중 전국 20여개 도시로 확산될 예정이다.



'아마존 프레시' 확장을 통해 아마존닷컴이 푸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마케팅 조사업체 스탠퍼드 스타인(alliancebernstein.com)은 푸드 관련 시장에서 벌어들일 '아마존 프레시'의 이익률이 판매액의 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soh@bostonkorea.com



미국 IT기업의 15명 CEO들은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NSA의 개혁을 촉구했다

대폰 통화기록 수집은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 수집행위를 중단

하고 관련 자료를 파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상급법원의 최종판결이 나

올 때까지는 명령 이행이 유보된 상태다.

hsoh@bostonkorea.com

공화당 지도부와 티파티 사이 분열 조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공화당 지도부와 공화당의 중요 지지세력인 보수 유권자 단

체 티파티(Tea Party) 사이에 냉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한 섣다운 위기를

넘기고 지난 12일 초당적인 합의로 2년짜리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티파티가 이번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2일 예산안 표결에 앞서 당내 강경보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면서 "보수단체들은 모든 신뢰를 잃고 선을 넘었다"며 티파티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력 티파티 단체인 '티파티 패트리엇스'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이 티파티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경고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또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복지지출에 대한 개혁도 없고 오바마케어의 재원을 모두 대주는 막후 협상의 산물로, 미국 국민에 대한 완전한 배반이었다

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티파티에 대한 호감도는 30%인 반면 비호감도는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51%로 나타났다.

최근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티파티가 여전히 정치권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년 치뤄질 의회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soh@bostonkorea.com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 병원 재활의학과 수퍼바이저
워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래 교수
삼육대학교 외래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학과장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문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10) 티끌 모아 태산

"젊은 날 어려운 것과 늙어서 궁핍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가올수록 은퇴준비를 일찍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나이를 먹어 갈수록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더욱 불안해 집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1세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보다 은퇴하는 기간이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은퇴준비로 비즈니스를 더욱 크게 해서 목돈으로 은퇴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합니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달에 약 \$400불, 일 년에 \$5,000을 은퇴자금으로 투자하면 어느 세월에 은퇴 목돈이 될까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5,000을 7%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곳에 25살부터 투자하면 은퇴하는 나이 70에는 \$1,641,122라는 커다란 목돈이 만들어 집니다. 같은 수익률로 35살부터 투자하면 \$79,687이 되며, 40부터 투



자하면 \$546,091이라는 은퇴자금이 마련됩니다.

늦은 나이 40부터 꾸준히 투자해도 50만 불이라는 은퇴자금이 형성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은퇴준비는 은퇴자금으로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라는 우리의 속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 하는 분들은 7% 투자 수익률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웃 한 벌 \$20불

에 가져와서 \$40불에 팔면 100%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복리이자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모든 물건에 100%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수입에 따라서 Traditional IRA에 저축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세금을 합하여 25%라고 가정하면 \$5,000 투자는 \$1,250이 공제됩니다. 이 말은 만일 투자하지 않고 \$5,000을 수입으로 가져오면 실제로는 세금을 제하고 \$3,750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영업이나 직장인이 은퇴를 위해서 투자하기 전 몇 개월간의 생활비가 은행에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 집수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준비한 목돈이 없다면 투자한 돈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플랜으로 투자한 돈을 59.5살 전에 찾게 되면 세금은 물론 페널티도 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돈이 불어날 기회도 놓치기 때문입

니다. 2013년 현재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의 수익률이 27%입니다. 투자한 돈이 없다면 이러한 수익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매달 100% 갚아야 합니다. 전액을 갚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로 부과되는 이자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로 이만한 수익률을 얻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401(k)와 403(b) 그리고 연방공무원이 투자하는 TSP 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받던 직장 연금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인 각자가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01(k)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금액 \$17,500을 40부터 은퇴하는 65까지 저축하며 7% 이자를 받을 때 약 \$1,200,000으로 백만장자가 됩니다. 또한, 젊은 시절 전부 지나갔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50이면 추가로 매년 \$5,500을 더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부터 65 때까지 7% 이자를 받으면 거의 \$150,000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은퇴준비는 작은 액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커다란 목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재투자와 은퇴준비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8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 (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9pm), (After 9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

이번주도 지난 주에 이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 미국에 지출한 의료비

김한국씨는 본인 및 가족을 위해 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액은 연 7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거주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공제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구체적인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 구입 비용 ...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의료기관은 한국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김대한씨

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김대한씨가 한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김대한씨의 미국 세금 신고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의료비 중 AGI(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항목별공제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의 의료비가 어느나라의 의료기관에 지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는 한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금신고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김대한씨에게는 아들과 딸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 아들은 미국의 대학교에, 딸은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대한씨는 연말정산시 두 자녀의 학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아님)을 위한 교육비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

녀의 교육비가 김대한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의 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그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적자가 아닌 김대한씨는 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김대한씨의 자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닌다면, 김대한씨가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한국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의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 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외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그 교육기관이 미 교육부의 ‘Federal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그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경우 한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는 그 대학이 ‘Federal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6. 미국의 종교단체 기부금

김대한씨는 미국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

액이 있습니다. 외국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낸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 기부금 등은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은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그 단체가 한국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김대한씨가 한국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김대한씨의 미국 세금신고시 기부금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미국의 세법도 자선단체나 비영리기관 등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낸 기부금은 일정 한도내(기부단체나 기부자산에 따라 AGI의 50%, 30%, 20%)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외국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가 한국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JESSICA BEAUTY

한국 종합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붙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석
스킨타우 프리미엄 리하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원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H MAR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DEC. 20, 2013-Dec. 26, 2013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Hmart Sweet Treats

Enjoy great tasting Korean snacks at unbeatable prices at Hmart
H마트 유명제과 과자대축제
DEC. 20 - 22 at HMART BURLINGTON

BUY 1 GET 1 FREE

HAITAI Wafers
해태 웨하스
Cream/Strawberry
1.97oz.
\$0.99

NONGSHIM Onion Flavored Rings
농심 양파링
3.17oz.
\$1.79

Happy Holidays

The MERRIEST CHRISTMAS FEAST!

ENJOY THE MERRIEST CHRISTMAS FEAST WITH A LITTLE HELP FROM HMART THIS HOLIDAY SEASON.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만찬도 H마트와 함께하세요!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UJI APPLE 후지 사과
\$0.99 lb.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BEEF RIB EYE STEAK 소 등심 스테이크
\$7.99 lb.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MARINATED TENDERIZED PORK BUTT STEAK 양념 볶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
\$3.99 lb.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YELLOW CROAKER GIFT BOX 10 lbs./box 영광굴비 선물박스
\$59.99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주스
\$12.99 16.9fl.oz. x 20btl./box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CERAMICWARE SET 세라믹 원형찬기 세트 Red/3pcs/set
\$5.99

MART 와 함께하는
FESTIVAL OF THE KOREAN ASAN PEARS
 Korea's Finest from the city of Asan

So Sweet, So Fresh!

December 20 - 22, 2013 at Hmart Burlington Store

Treat your family with delicious, yet so healthy Korean Pears from the city of Asan, Korea.
우리농산물 마산신고배 판촉전
 당도 높고 과즙도 풍부한 한국산 명품 "마산 신고배"를 직접 맛 보시고, 구매도 하세요.

Big SAVINGS FOR SMART SHOPPERS LIKE YOU!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2.49**
- SAMPIO Red Pepper Paste! 샘표 태양초 우리쌀 고추장** 2.8kg **\$10.99**
- YES! CHIPS! YES! CHIPS! OHSUNG Yes Chips 오성 예스칩스** 3.52-5.11oz. **3\$4**
- Ox Tail 소꼬리** lb. **\$5.99**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0.99**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box **\$24.88**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JINGA/SOONYEOWON! Tofu 진가/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6oz. **\$0.88**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Onion 양파 10 lbs./bag **\$4.99**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Pork Spare Rib for BBQ 비비큐용 돼지 갈비 lb. **\$1.99**

-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lb. **\$1.99**
- SUHYUP Sliced Squid 수협 볶음용 오징어** 500g **\$4.99**
- SUHYUP Salted Mackerel Fillet 수협 뼈없는 고등어** 130g **\$2.99**
- 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 Sliced 통통배 절단낙지** 1.5 lbs. **\$7.49**
-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Live Whelk 생굴뱅이 lb. **\$1.99**

- HANSUNG Fried Fish Cake 한성 부산어묵** 1kg **\$4.49**
- SAJO HAEPYO Roasted Seaweed 사조 해표 이영애 파래/재래 도시락김** 5g x 16ea./pkg. **\$4.49**
-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1.99**
- HAIOREUM Bai Top Shell 해오름 굴뱅이** 14.1oz. **\$4.99**
-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120g x 16ea./box **\$9.99**

- HAIOREUM/NATURE'S Red Bean 해오름/자연담은 붉은팥** 4 lbs. **\$6.49**
- ALCHAN SOONDAE Korean Brand Link 알찬 순대** 1.5 lbs. **\$7.95**
- MAZEL Coffee Mix 마젤 커피믹스** All Varieties 100cnt/pkg. **\$8.99**
- SANDEULBADA Edible Green 산들바다 취나물** 1.32 lbs. **\$3.99**
- PALERMO Olive Oil 팔레모 올리브오일** Grapeseed/Extra Virgin/Pure 34fl.oz. **\$5.99**

- KOMAX Vinyl Gloves 코맥스 위생장갑** 200cnt/pkg. **\$3.99**
- INCENSE Food Container 인센스 친환경 밀폐용기** 7400ml/ea. **\$9.99**
- ONE MIND CARE Loess Waist Fomentation Pack 한미음케어 황토 허벅지팩** ea. **\$9.49**
- ANN'S Knee Blanket 앤스 무릎담요** 150 x 200cm/ PFB-005/ea. **\$13.99**
- ZOJIRUSHI Lunch Jar 조지루시 보온 도시락통** Gun Metallic/ SL-XB20HG/ea. **\$39.99**

중가집
 사은품 증정 이벤트

- ★ PURCHASE CHONGGA POGGI KIMCHI 5kg & GET A FREE FOOD CONTAINER (5L)
- ★ PURCHASE CHONGGA FIBER POGGI KIMCHI 2.5kg & GET A FREE CHONGGA MAT KIMCHI 500g!
- ★ PURCHASE CHONGGA MAT KIMCHI 2.5kg & GET A FREE CHONGGA KAKTUGI 500g!

Dec. 21 - 22, 2013 at Hmart Burlington

all natural certified delicious
HMART ORGANIC
 H마트 유기농제품으로 더욱 건강하세요.

ORGANIC FARM Organic Steamed Rice Bowl
 유기농장 유기농 밥
 7.4oz. x 6ea./box
\$8.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S / MA-128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 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S / MA-128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Hmart Cambridge store COMING SOON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H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www.facebook.com/hmartofficial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The following sal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our website www.hmart.com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악역의 출연

어릴적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악역이 출연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선과 악은 이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악역이 등장한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현실에는 저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일 거야’ 라고 위안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큰 돈이 거래되고, 승진에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끔 악역들이 현실에도 출연하는 것을 목격한다.

악역들의 공통점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그들은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변명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가끔은 눈물을 보이는 연기도 섞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시키려고 한다. 둘째는 편가르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상대방이라고 단정하고, 열심히 편가르기를 한다. 셋째는 자신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열할 정도로 자신의 편으로 만드려고 노력한다. 넷째는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내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나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힘담하는 사람이다. 그 힘담에 반대하면 나는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힘담에 동의하면 나도 악역이 되는 것이다.

악역의 뒷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큰길(

正道), 즉 밝은 길만 걸으면 된다. 그리고 악역의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과장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고, 항상 모두에게 존중하고, 누구든 힘담하지 않으면 된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악역들이 너무 많다.

TV뉴스에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변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면서 상대를 끝없이 힘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자신들을 편드는 방송국에만 출연하려고 한다. 이런 악역들을 드라마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드라마는 TV를 끄면 모든 에피소드가 끝나지만, 우리 주변 정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정치드라마로 인해서 내년 세금, 연방해택, 이민정책, 국가예산이 바뀐다. 이들의 정치드라마를 뒷집지고 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큰 여파가 미쳐진다. 사실 이들을 정치드라마에 출연시킨것도 우리다. 이들을 투표로 뽑아준 사람뿐만이 아니고 투표를 포기한 사람도 이들을 뽑아 준 것이다. 선거권을 포기한 사람은 정책에 대한 비평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나의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하루에 한개씩만 줍는다면 세상은 깨끗한 거리로 변할것이다. 늘상 부르짖는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세상 사람들이 실천한다면 과연 그 많은 구호기관이 필요할까? 인류의 일일일선을 바라지도 않겠지만 몇년에 한번씩 오는 선거권은 꼭 찾기를 바란다. 국민을 무시워하는 국가에는 악역이 출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난 부동산 사무실을 이끄는 리더 브로커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다 똑똑하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똑똑한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에이전트들을 교육 시키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 보다는 인성 교육이 먼저더라. 손님도 마찬가지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토샵 튜터링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 노래방 시설 완비!

월-목 11:30~3:00/4:30~10:30

금-일 11:30~3:00/4:30~11:00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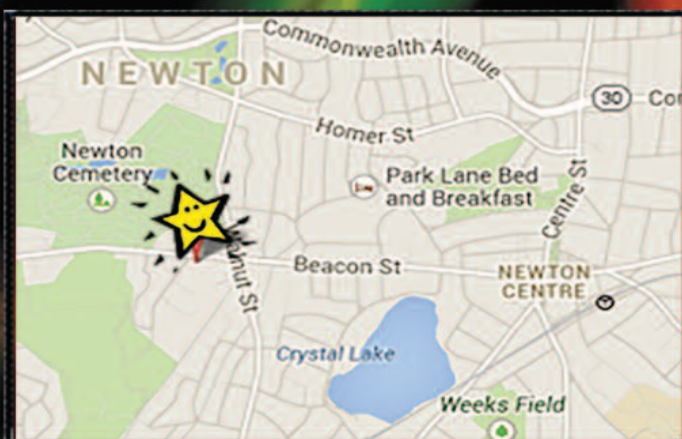
확! 달라진 메뉴와 맛으로 압구정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생갈비와 토알갈비
크리코 함께 즐기는 \$6.99 소주!
푸짐 칼칼한 아구찜과 곱창전골!!



참이슬
Original
ONLY \$6.99



9시 30분 이후 단체 식 노래방 이용 가능!

단체 손님 예약 환영!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 노래방 시설 완비!

뉴 압구정 찾아 오시는 길
(뉴튼 센터 역에서 차로 3분거리)



기억통 記憶痛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객원 칼럼니스트)

그날 오후에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눈에 잡혀 휘뿌리는 눈썹은 날리는 빗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눈은 땅에 닿으면서 곧 녹았다. 녹는 눈은 더 차갑다. 목덜미에 닿는 눈에 진저리쳤다. 짓궂은 날 오후였고, 뜨거운 차향기가 그리울 날씨다. 그나마 쌓이는 눈이 아닌게 다행이었다. 비가 쌓이는 눈을 녹였다.

 아내가 황동규 시인 시집을 구해왔다. '사는 기쁨' 이 책제목인데, 첫 시가 눈에 잡혔다. 겨울로 들어서는 지금

읽기에 적당하지 않다. 황시인의 시는 산문과 운문의 경계를 오고가는 듯 싶다. 혼자 주절이 주절이 조리는 듯싶다만, 반짝이는 시어가 과히 나쁘지 않다.

'늦마에 미국 가는 친구/이메일과 전화에 매달려 서울 서 처럼 살다가/자식 곁에서 죽겠다고 하지만 /늦가을 비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인사동에서 만나/따끈한 오뎅 안주로 천천히 한잔할 도리는 없겠구나.

하나 같이 살다 누가 먼저 세상뜨는 것보다/서로의 추억

이 반짝일 때 헤어지는 맛도 있겠다./잘가거라./박테리아 들도 돌로 갈라질 때 퇴락이 없다면/왜 힘들여 갈라지겠는가?/허허' 이별없는 시대 (황동규)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네.' '도서관 앞에 세워 둔것 같은데'. 그가 투덜거렸다. 캠퍼스폴리스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몇달이 지났다. 그가 말했다. '자전거 찾았다.' 기쁨에 넘쳐, 돌아온 탕아를 맞는 아버지처럼 들떠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었고, 타이어는 바람이 다 빠져있었다 했다. 몇달 모진 풍상을 겪고 그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더라. 눈물까지 핑들었다고 그가 말했다. 듣던 누가 물었다. '그래 어디서 찾았나?' 대답이 걸작이다. '도서관 앞'. 그날 그가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는 걸 까맣게 잊은 거다. 헌데, 문제가 생겼다. 자전거 자물쇠 번호를 기억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전거가 당신 것인지 증명해라.' 학교경찰이 요구했다. 자전거를 산 영수증을 보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 그 친구 여전히 기억이 오락가락하는지 알 수없다. 그가 여전히 도서관에 다니는지 그것도 알수 없다. 물어 보지 않았다.

노년이 괴로운건 추억의 무게때문이라 누가 말했다. 하지만 때때로 추억을 떠올리고 피식 웃는다. 추억이 반드시 무겁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그 친구 모습대신 해맑던 다른 친구얼굴이 먼저 떠오르는건 무슨 연고인지. '누구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 안될까요?' 그가 묻던 질문이다. 그해 그 친구에게 그 말은 굉장한 화두였다. 그가 여전히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와 마주 앉아 정종대포에 오뎅안주가 그리운 계절이다. 그 친구도 늙었을 게다. 웃으면 눈이 보이지 않더니만, 맑던 웃음은 잃지 않았으면 한다.

'네 마음의 친구를 잊지 말며 네가 부자가 됐을 때에도 그를 기억하여라.' (집회서 37:6)



하버드, 프린스턴, 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대학과 MIT, 스탠포드에 90% 합격률을 유지하는, 보스톤의 최강 강사진으로 구성된, **선진학원**에서 다음 강의를 오픈합니다.

방학 내용	기간	강좌 내용	강사진
뎡스기빙	11/23 ~12/ 2/2013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9차생까지)	Olivia (Columbia대학원 석사과정, 보스톤 및 서울 유명대학 강사유급임)
겨울방학	12/20/2013 ~1/5/2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9차생까지)	Richard (Columbia대학원 석사과정, 보스톤 및 서울 유명대학 강사유급임)
봄방학	3/5~3/23/3014	SAT I / All subjects AMC 10,12 (9차생까지)	Daniel (MIT 수학과 졸업, MIT 대학원 석사과정, 보스톤 지역대학 강사)

* 상기 기간은 개별학교의 Break 기간이 다르므로 학생별 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영문학, 미국 역사, 세계사 박사 소지자로서 선진학원 다년간 강사 경험자 참여함. 물리, 화학, 컴퓨터, 라틴어 강의도 합니다.

년중 매주 월,수,금(4~6시), 토,일 (10~12시, 1~3시) :SAT 그룹강의 개설:클래스당 3명 이상시 강의 개설함.

학부모님 학원 예약 방문시 무료 대입및 고입 상담

차별화된
특강

- 강의 기간동안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가이드 및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투어도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워 기간동안 그룹 강좌 외에 개인 강좌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과목 강의 가능함.
- 개인 학생별 상담하여 중학교,고등학교 수업기간별 마스타 플랜 작성해줌.
- 미국 현지의 최고 수준의 과목별 강의와 맞춤형 Extra Curriculum 제공

1050 Waltham St. Suite#320 Lexington, MA 02451

781-863-0677 icarus766@gmail.com

송영두 박사의
조기유학 물고 답하기

송영두 박사 (보스톤유학원 원장)
미국 617-491-0041 / 서울 02-579-9731
Email: ysong@bosec.com / www.bosec.com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들이 성적 볼 때 Weighted GPA를 보나요? 아이비 리그 가려면 GPA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Weighted GPA란 우리 말로 하면 성적의 가중 평균치이다. 즉 모든 과목을 난이도에 상관 없이 A 받으면 4.0 주고 B는 3.0 주고 C는 2.0 줘서 과목의 GPA (Grade Point Average 평균 평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AP나 Honors 같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점수를 조금 더 줘서 계산한 GPA를 Weighted GPA 라고 한다. 예를 들면 AP는 5점, Honors는 4.5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목이 어려운 경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GPA를 높고보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려운 과목을 많이 제공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은 명문 사립 특히 보딩 스쿨들은 대부분 Weighted GPA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미국 교육자들의 교육 철학과 각 학교의 역사와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교육 기관들은 우리 만큼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명문 학교들은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고 난이도의 단계도 여럿이라 이를 공평하게 가중 평균하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프고 문제의 소

지가 많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숫자만으로 선생과 학생의 노력,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다. 이런 이유로 Weighted GPA를 잘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4.0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아주 많다. 예컨대 Phillips Academy, Andover는 6.0 만점이고 Phillips Exeter Academy는 11점 만점이고 Groton은 100 점 만점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A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가 B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부모에게 '우리 애는 이번에 GPA 3.9 받았는데 거기는 몇 점이에요?' 라는 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리다 보니 당연히 생기는 의문은 Weighted GPA 건 regular GPA 건 숫자를 비교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대학에서 입학 사정에서는 뭘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 그리고 Phillips에서 5.0 받는 학생과 Groton에서 90 받는 학생을 어떻게 비교할까? 같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굳이 예/아니오로 답하자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비교가 쉽지 않다고 봐야겠다.

그렇다면 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학교 성적을 어떻게,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대학에서는 래서 대학 입학에서 중요한 것이 학교의 프로파일, 석차, 그리고 과거 입학 실적이다. 우선 학생의 학업 능력은 석차로 알 수 있다. 이를 듣고 많은 사립학교 부모들이 '우리학교는 석차 발표 안하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밀은 학교 프로파일에 있다. 각 학교는 대학으로 매년 그 학교의 프로파일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어떤 과목 등이 제공되며, SAT 평균이 얼마이고 AP는 몇 명이 무슨 과목을 수강했고 점수 분포는 어떤지 같은 것이 나와 있다. 또한 그 학교의 GPA 분포가 나와 있다. Phillips Exeter 같은 명문 학교는 심지어 9학년부터 다닌 학생과 10, 11학년부터 다닌 학생을 구분해서 GPA 분포를 제공한다. 이 분포를 잘 들여다 보면 정확히 15 등인지 16 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학생이 1 등에서 5 등 사이인지 10 등에서 15 등 사이인지는 알 수 있다. 대학에서는 GPA에 의한 석차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난이도 혹은 질을 같이 들여다 본다.

그러면 A 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B 학교에서 받은 성적은 어떻게 비교할까? 일부 주립 대학이나 큰 학교들은 고등학교에서 받은 GPA를 4.0 시스템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기도 하지만 명문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환산된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답은 서로 다른 학교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거나 비교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자료는 그 고등학교의 과거의 입학 실적이다. 예컨대 하바드에 입학 하는 Phillips Academy 학생들을 보자.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매년 대개 10-15명 내외이고 지난 30년간 숫자는 점차 줄고 있다.

2000-1996				
17	15	24	28	15
2006-2002				
19	16	17	15	11
2011+2007				
15	12	19	9	23

좀 더 대학 입학 사정관의 입장으로 말하면 숫자가 중요하게 아니고 대상 학생의 전체적 그림- 그것이 공부 건, 공부 이외의 것이건 간에- 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을 holistic approach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종합적 검토 혹은 전체 그림을 보기 정도일 것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답변 내용은 보스톤유학원에 저작권과 판권이 있습니다. 보스톤유학원 허락 없이는 허가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GRAND OPENING

JEI-Burlington 재능교육

대상: Pre-K 부터 9학년 까지

- Parents ask us if we are like Kumon/구몬**
- Yes, but...**
 - has a scientific diagnostic system. It pinpoints the missing links in learning, and prescribes an individual study program based on specific needs.
 - provides a comprehensive curriculum. JEI Math, for example, covers not only number operation but geometry, measurement, and more.
- JEI Math (Pre-K ~ 9학년)**
점프러닝의 지능시스템 통해 수, 연산, 도형, 측정, Relation & Function 등 수학의 모든 영역을 교육
- Problem Solving Math (2학년 ~ 8학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상황수업으로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배양
- JEI English (Pre-K ~ 9학년)**
점프러닝의 지능시스템 통해 언어, 읽기, 쓰기, 문법 등 Language Arts의 모든 영역을 교육
- Reading & Writing (2학년 ~ 9학년)**
임선된 문해의 능력이 독해를 통한 읽고 쓰기, 한자 및 한문교과 학습, 시, 기사, 부속문 등 다양한 문학상(문학) 연구, 공부



www.jeilearning.com/burlington
Visit our website for a complete list of JEI Learn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and Canada.
원장: 박창진
T. 781-365-0075 Learning Centers

Diamond International Wholesale

Import | Export
관련 한국말 상담(무료)



- + 최저 가격 보장
- +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
- + 10 million dollar 이상의 다이아몬드 보유
- + 유일한 한인 wholesaler
- + 미국 유명 연예인 다량구매
- + 세계 최고 권위 GIA 감정서
- + 보스톤 다운타운 줄리리 필딩 내 사무실

Perfect Christmas Gift!

- #02261 GIA 1.09 ct Round EVS1 \$13,500
- #02262 GIA 1.01 ct Round FVS1 \$10,000
- #02263 EGL 1.25 ct Round FVS1 \$9,000
- #02264 EGL 1.01 ct Round D SI2 \$4,500
- #02265 N/A 1.03 ct Round D SI2 \$3,500

JIN CHONG 대표 | 정진규

주문 및 예약문의 | 617-921-8999 by appointment only
Jewelers building | Downtown Boston
333 Washington St. Boston MA 02108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전공선택이 대학 입학에 유리한 조건인가?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미국 명문 대학들이 매년 조금씩 입학 조건에 변화를 주고 있다. 각 대학 입학 담당자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추세이다. 대학 역시 자연스럽게 전공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모든 대학 원서를 보면 전공 선택 관련 질문을 필수로 주면서 미래 직업관에 관한 생각을 동시에 묻는 질문이 있다. 이는 가능한 학생이 흥미있는 과목과 전공을 미리 심도 있게 생각하여 전공을 정하여 지원해 줄 것인지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학생이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우는 다양한 활동과 동시에 문과와 이과 과목을 균형있게 선택하면서 여러가지 뛰어난 재능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이다.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원서 작성에 필요한 에세이와 액티비티를 잘 조절하여 준비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 대학들의 경향을 보면 전공을 정하여 그와 관련된 활동, 학과목 이수여부, SAT 2, AP등의 시험 점수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는 명문 대학 지원자수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스펙을 가진 많은 학생

들로 지원자가 넘치고 있고, 준비 또한 거의 완벽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신의 분야에 열정과 깊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면 사실 전공을 정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다.

아카데미 측면에서 볼때, 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들과 대학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을 선택한 후 학생이 흥미 있는 과목을 자임세 있게 준비하면서 동시에 대학 섬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턴십, 리서치, 학점 등을 이수 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흥미가 줄면 빨리 다른 분야를 찾을 수가 있고 대학 입학후 새로운 흥미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여 공부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전공 분야를 정하는게 유리하다.

교외 활동 측면에서 볼때, 학교에서 흥미 있는 분야와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동시에 할 수가 있고 저학년 때부터 차근 차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고학년때는 리더쉽 경험을 할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섬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그 분야의 깊이와 열정을 보여 줄 수가 있다.

각종 경시 대회 측면에서 볼때, 저학년 때부터 개인, 팀을 통한 경시 준비와 참여를 통해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



을 수 있고, 고학년때는 충분한 경험을 통한 준비로 입상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 최근 많은 경시 대회가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한번의 준비로 입상까지 바라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을 통해 전공관련 분야의 경시대회 참여는 대학에 지원자의 열정을 보여 줄 수 있는 큰 무기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공을 정하여 준비한다면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다양한 경

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험준비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공과 흥미 있는 분야를 가능한 빨리 찾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그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로서,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전사,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TAR BOSTON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Specialist

Kwang O Kim / 김광오

Vice President

Direct: 617. 792. 8615

<p>Woburn 단독주택 / \$384,900 방 4, 화 2, 1562 sf. 새로수리된 깨끗한집 하이웨이에서 근접</p>	<p>Boston 콘도 / \$425,000 방 1, 화 1, 654 sf. Top quality condo Fenway E.U. Area</p>	<p>Westminster 타운하우스 / \$149,900 방 3, 화 2, 1200 sf. 조경하고 아름다운 타운하우스</p>	<p>Acton 콘도 / \$605,500 방 3, 화 2.5, 2574 sf. New home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택가</p>
<p>Acton 콘도 / \$788,899 방 4, 화 2.5, 3198 sf. New external paint</p>	<p>Winchester 단독주택 / \$814,900 방 4, 화 2.5, 2550 sf. Spacious open floor plan</p>	<p>Acton 단독주택 / \$570,000 방 5, 화 3.5, 3542 sf. Updated kitchen and bath</p>	<p>Acton 단독주택 / \$490,000 방 4, 화 2.5, 1824 sf. Charming brand new house</p>

13년의 탄탄한 경력과 노하우로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el 781. 259. 4989
 Fax 781. 259. 495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 4989
 Fax 617. 969. 4959

BostonNewStarRealty.com
 NewStarRealty.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역사 (4) 1920년대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텔레이처럼 번지고 있다기에 무엇인가 뉴스를 봤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SNS에서, 저마다의 실명을 걸고 “안녕하십니까, 저는...”의 외침이 퍼진다고. 그 시발점은 고려대학교의 한 대학생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그리고 그로 인한 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문제 등 허수아비 시절을 사는 우리들이 정치적 관심을 끌고 정말 안녕할 수 있는 지를 반문했던 한 대자보였다.

“안녕들 하십니까?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라고 시작된 대자보는 느낌표로 질문하며 마쳤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공화당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가면서 지난 칼럼에서 살폈듯, 1980년대는 공화당이 화려하게 부활한 시기, 1960년대는 공화당 부흥의 내적 토양이 다져진 시기였다면,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서 아이젠 하워가 20년 만에 백악관에 입성하는 1952년에 이르는 시기는 아마 미국 공화당에 있어 20세기 최고의 암흑기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1930년대는 극소수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암

울했던 대공황의 시기였으니 공화당이 예외일 수는 없었겠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1930년대 미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미국 공화당의 경제정책이 결코 작지는 않았다. 물론 대공황 당시에는 1929년의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 붕괴 이후 후버 행정부(공화당)가 공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후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후버 때문에”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공화당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대세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재앙이 후버 재임기에 터졌다면, 미국인들이 “쿨리지의 변영”으로 기억하는 쿨리지 대통령 재임기에도 그 이전의 하딩 대통령 재임기에도 미국 경제는 대공황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1933년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민주당)이 추진했던 뉴딜은 도시 저소득층과 노동계급의 민주당 지지세를 공고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었던 흑인이 민주당으로 이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차 대전 후 미국이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장악한 시대, 레드 컴플렉스와 불관용의 시대, 재즈의 시대, 자동차의 시대, 금주법의 시대, 도시와 농촌 혹은 종교와 문화적 개방성이 갈등하던 시대, 1920년대의 얼굴은 다양하다. 그러나 1920년대가 저물어가던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이해하려면 1920년대가 공화당의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된 황금기였던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1920년 당선된 하딩 대통령, 1923년 하딩이 암살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1924년 선거에서 당선된 쿨리지 대통령, 그리고 1928년 선거에서 당선된 후버 대통령이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으니 1920년대가 공화당의 시대였다는 데에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후버 대통령이(물론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1928년 선거에서 쉽게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공화당의 변영”을 이어나갔다는 약속을 미국인이 신뢰했다는 데에 있다. 적어도 선거 시기 그가 꿈꾸던 미국은, 그의 재임 1주년이 지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겠지만, 전 미국 가정의 저녁식탁에서 치킨이 끊고 있는 풍요로움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전임 하딩과 쿨리지 시기 미국의(표면상) 변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핵심에는 하딩 재임기 재무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론의 경제정책이 있다. (멜론의 경제정책은 쿨리지 재임기에도 이어진다.) 멜론하면 생각하는 피츠버그의 알류미늄 황제 멜론이다. 당시 미국에서 상위 0.001%에 속하던 부유층이었던 멜론의 경제정책 핵심에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있다. 멜론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는 “낙수효과”(Trickle Down)이론이

다. 낙수효과 이론은 물이 세울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장보다는 자본 증식에 유리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투자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거 27%의 관세율을 38.5%까지 높였던 것.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유럽 및 미국에 대한 채무 지불 능력을 근본적으로 훼손, 대공황과 2차 대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관세정책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공화당 대통령들은 경제부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즉 기업에 대한 탈규제에 가까운 자유방임의 철학이었다. 정부의 규제가 적을수록 기업은 사회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그러나 현실은? 일부의 부유층은 아마 안녕했는지 모른다. 그 시기, 당장의 총생산은 훌륭해보였을 지 모르지만 대공황의 짙은 무력 무력 자라나고 있었다. 1920년대 공화당의 황금시대는, 스스로의 운명에게는 재앙적인 변영이었던 셈이다.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6년근 명품 홍삼에 114년 2013년 최고의 선물이 되다

타주로 포장 후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EVENT 1

SET A



240g 홍삼정 2개 구입시
80g 홍삼정 무료 증정

SET B



240g 홍삼정 구입시
30g 홍삼정 무료 증정

SET C



120g 홍삼정 구입시
31.5g 환 무료 증정

EVENT 2



10% OFF

홍삼 추출액

(지삼, 양삼, 절삼)

6년근 홍삼만을 사용하여 뿌리삼의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홍삼 상품입니다.



홍삼라떼

제품이 품절이 되어 12월 23일 (월) 2차 입고 예정입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배송 서비스 안내

\$100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100 이하 구매시 \$5 배송비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성탄축하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탄전야예배 (Candle Light Service)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30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성탄축하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킷드라마, 바디 워십, 칸타타,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 비전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비전 교회
GRACE VISION UMC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양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세막기도회 : 오전 6시 (취요일 제외)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1-6793 • 603-261-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임목사: 김 덕 기

★ 청년부 사역자 찾습니다. ★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Parish at Corpus Christi

<판공 성사> 12/20 (주일) 주일미사 전, 후
<성탄 밤미사> 12/24 (화) 8pm
<성탄 낮미사> 12/25 (수) 4pm

<송구영신 미사> 12/31 (화)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1 (수) 11:30am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원격의선 끝물향터
원격의선 복사열을 발산하는 화질단 기술
신기술 난방지체, 전자파가 없는 친환경 침전난방
원격의선과 올바른이 방을되는 쾌적한 온을 문화

원격의선
교회기도실, 유아실, 오피스텔, 마파르, 병원, 요식업소
등에서전자파는 없고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

ondolusa
www.ondolusa.com
646.670.1810
701 hammond st, chestnut hill, MA 02467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89.5809

CHUNG DAHM **ReadWrite**
the critical reading & writing experts

신규등록 학생에게는
\$50 Discount가
적용됩니다

아이가 책 읽는건 좋아하는데 라이팅과 스피킹이 부족한가요?
형제어화할의 다양한 저용학기 프로그램으로 Reading, Writing, Speaking 세가지 모두에 자신감을 끌어 넣어 주세요!

리딩과 라이팅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ReadWrite 수업으로 아이들의 스킬을 길러 주세요!
2019년 겨울학기는 12월 9일부터 3월14일 까지 (12주 과정)이며 등록은 그후에도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수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pository Analysis Grades 5-12 비소설/설명문 수업	• Literary Analysis Grades 1-9 소설수업
• Issue Analysis Grades 3-9 이슈토론수업	• Writer's Workshop Grades 3-4 라이팅 워크샵 수업

자세한 스케줄은 www.BostonReadWrit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세요.
www.BostonReadWrite.com | info@BostonReadWrite.com | 857-404-0170

디지털카메라의 이해와 활용 컬럼 187 Nabis Studio Creative Director 양성대 ozic@hotmail.com

변화와 응용

뮤지컬, 연극, 콘서트 혹은 이벤트 촬영은 빛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단지 셔터박스가 나갈 정도로 연사를 날린다고 원하는 사진이 찍히지는 않는다. 빛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ISO 감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대충은 알지만 기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정하기가 두렵기도 하다. 이번 컬럼에선 ISO 감도와 이벤트 촬영시 도움이 되는 사진의 기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자.

ISO는 무엇인가? ISO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이다. 필름 카메라 시절, 카메라 필름 제조사들은 여러가지 필름을 내놓기 시작했고, 사용자는 자신의 용도와 촬영 상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필름 감도의 규격표시나 감도 기준이 제조사마다, 나라마다 다르니 혼란이 생겼다. 가령, 필름감도 표시가 미국은 ASA, 독일은 중심으로 유럽은 DIN, 동구권은 GOST 등이 있었다. 그래서 ISO가 나서서 전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필름 감도(빛에 반응하는 정도)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약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도 이어지는데, 필름에는 ISO 감도가 고정되어 있어 필요한 ISO에 맞게 필름 자체를 바꾸어야 했으나 디지털 카메라는 ISO 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ISO는 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ISO는 빛이 부족하거나, 빛이 없는 어두운 곳

에서 최소한의 빛을 이용해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고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용한다. ISO가 높을수록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적정노출 = 적절한 조리개 개방 + 적절한 셔터스피드 값' 이다.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감도, 이 세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조리개는 심도에, 셔터속도는 흔들림에, 감도는 입자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적당한 밝기뿐 아니라 사진 내용에 맞는 심도에 맞는 화면의 흔들림의 유무, 그리고 화면이 깔끔하고 거친 정도의 균형이 잘 맞아야 보기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ISO의 개념은 쉽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하며 사용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하자.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선 ISO와 같은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리딩라인(Leading Line), 대칭과 비대칭이란 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진가와 미술사는 공통점이 많다. 둘 모두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쳐다보게 만드는 데 대가들이다. 사진가는 이른바 리딩라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조종하는데, 바로 사진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그것이다. 길이나 강, 또는 줄지어 가는 오리 떼 등 장면 속을 이어지는 선이 될 수 있



Photograph by Soungdae Yang

는 아무 것이나 생각해 보자. 리딩라인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으며, 사진 속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는 온전히 사진사에게 달려 있다.

인간의 뇌는 대칭에 끌린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물리적인 매력의 핵심 요소는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대칭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사진에서는 양쪽에 동일한 시각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이런 대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진 촬영시 필요에 따라 대칭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보자.

모든 규칙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일부 비대칭은 실제로 완벽한 대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진을 만들어 낸다. 특히 장면 자체는 실제로 거의 대칭에 가까운데, 하나의 요소가 돋보이거나 대칭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이런 효과가 강하다. 이런 비대칭은 긴장감을 만들어내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리딩

라인처럼 시선을 잡아 끄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진의 기본 정석을 잘 지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그 틀을 깰 필요도 있다. 가령 인물이 들어간 사진촬영은 인물의 정면이나 옆모습만 찍는 것이 아니다. 사진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뒷모습으로 훌륭한 작품을 쏟아내는 작가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에두아르 부바'가 대표적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은 타인들에 대한 관심에 역점을 둔 전후 미술 성향과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ISO, 리딩라인, 대비와 비대칭 등의 사진의 기본에 좀 충실하면서, 동시에 기본 틀을 깨고 바꿔보는 다양한 사고와 시각적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본을 지키면서도 변화시켜보고 응용해보자.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즈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이민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28 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무심히 떠가는 구름을 보고...

"무심히 떠가는 구름을 보고 어떤이는 꽃같다고 말하고 어떤이는 새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득, 웹 공간을 지나다 만난 문구가 마음을 사로 잡는다. 그래, 정말 그럴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피식 웃음 하나 흘려보낸다. 각자 어떤 마음 안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은 판이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인양 받아들이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롭게 마음 안의 생각을 웃음으로 흘려보내는 이들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결정짓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저 그 오랜 세월 흘러내려 오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와 문화 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보편적'이라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다만,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상대가 틀렸다는 그 마음

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이해가 없는 배려가 없는 독선적인 마음에서 표출된 한 행동 방식일 뿐이다.

한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해야 하는 계사년(癸巳年) 십이월 중순의 언덕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심히 떠가는 구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한 해를 보냈을까. 여느 날보다 깊은 생각에 머물러 있던 하루다. 무엇보다도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고 몸과 마음을 모아 깊은 묵상에 있던 하루였다. 늘 이맘때쯤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 살았는가. 잘살고 있는가 묻는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이길 늘 기도한다. 그 어떤 선택이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한 선택이 아닌 나 자신이 선택했기에 그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당당한 삶이길.

때로는 바쁜 세월 속 귀한 시간에 자신의 삶의 얘기보다는 여기저기 떠도는 남의 얘기에 시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어보지 않기를 마음 깊이 새김으로 남긴다. 가끔은 곁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달

을 때가 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몇이 내게는 큰 축복이고 나의 삶에서 귀하고 값진 자산이기도 하다. 어릴 적 친구가 곁에 있어 늘 든든하고 함께 골프를 하는 친구 부부가 곁에 있어 늘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삶에서 그 어떤 것 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 모두가 짜여진 바쁜 시간에 쫓기며 사는 현대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편안하게 마주하고 얘기하며 화들짝 웃음 한 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 언어'가 아닐까 싶다. 서로의 생각이 통할 수 그런 만남이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이 부부의 얘기든, 자식의 얘기든, 가족의 얘기든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편안하게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면 최고이다.

한국에도 산 친구들이 몇 있다. 자연을 좋아하니 그 친구들은 말수가 적은 편이다. 함께 힘겹게 산을 오르내리며 서로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마음일 게다. 지구 반대편에서 떨어져 멀리 있어도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들이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알 수 없는 힘(에너지)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가끔 한다. 사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건조하다고 느낄 때 자연과 함께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집안의 꽃나무와 마주하고 집 밖의 나무들과 마주하며 소통하는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우리네 인생에서 어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몇이 있으며 또 몇이 있을까? 이렇듯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밀어내지 말고 틀렸다고 뒤돌아서지 않는 삶이면 귀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 무심히 떠가는 구름을 보고 서로가 느끼는 대로 함께 바라봐 주고 탓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삶이면 좋겠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내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관계이면 좋겠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키와 눈높이에 맞춰 서로 마주할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길 오늘도 소망해 본다.

2014년 새해 맞이 건강 프로젝트

宣 癒 堂

일반 보약 \$250

녹용 보약 \$380

한약의 탁월한 효능과 신선함을 위해 선유당에서는 직접 한약을 다려 드립니다.

한의원 선유당

1208B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Tel 617.327.1812 www.sunudang.com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proud carrier of

WIDEX SIEMENS EarQ Westone
oticon Starkey ReSound PHONAK

ASSISTIVE LISTENING DEVICES
Now Available • Call for Details

TV EARS Listening System, Vibrating Alarm Clock, Amplified phone, Vibrating Watches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MOON HEARING SERVICES
www.moonhearing.com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전쟁과 규장각 도서의 수난 장서각의 이조실록은 평양으로 갔다-5

(지난호에 이어서)
김일성 수령이 말하기를 “리조실록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공산주의자가 구출해 와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보가 어디 이조실록 하나 뿐이겠는가 그 보다 더 귀중한 보물은 삼국시대의 유물인 고구려의 벽화, 신라의 금관, 백제의 불상, 고려의 청자 그리고 구황실의 남겨놓은 옥새(어보) 등이 더 귀중하고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왕권계승의 증거이며 권력의 표시인 옥새야말로 최고의 것이리라. 그러나 왕정이 몰락한 현실에 있어서 옥새는 그 위력을 상실하여 골동의 가치밖에 없는 사적인 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조실록은 조선조 역대왕의 치적을 기록한 귀중한 문헌이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서일뿐 아니라 역대왕의 계승과 그 정통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공자님이 말하기를 거국유도이사위분(居國有道而嗣爲本) 즉 나라가 사는데 도가 있으니 계승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조실록은 다른 어느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한국 유교정통의 세습을 입

증한 역사서이다. 그래서 국가는 이 역대왕의 실록을 존엄한 것으로 귀중시하여 명산대찰에 사고(史庫)를 짓고 봉안해 왔던 것이다. 나라가 그 역사를 보존하는 일은 안보만치나 중요하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열강이 그 세력을 극동으로 뻗어왔다. 서진동래이라고 한다. 강대미국은 중국에의 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1853년에 쇄국일본을 무력으로 개방시키고 이어 조선으로 와서 개항을 요구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기독교전도의 자유와 통상을 요구하며 함대를 파견하여 위협했다. 1866년 병인양요이다.
1866년 10월 로저스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서해로 들어와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정족산 전등사 경내에 있는 적산산사의 이조실록을 탈취하려고 공격했다 그러나 선봉장 양수현수의 반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와 강화읍내에 있는 규장각외각의 역사서를 몽땅 탈취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한일합방을 강제하고 조선시대의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을 폐쇄, 그장서를 모두 조선총독부에 보관했다. 그리고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경내에 있는

오대산 사고의 이조실록과 명성황후의 국장도감의궤등을 탈취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같은 일련의 역사탈취 사건은 악의 제국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한민족의 근본을 그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악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어느민족이나 국가가 그 고유의 언어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자체의 역사를 간직하지 못하게되면 결국 망하고 만다. 중국의 여진족(지금의 만주족)과 일본의 아이누족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 한 예라고 하겠다.
김일성 수령은 서울에 파견한 요원들이 이조실록의 원본을 신고 평양에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리조실록이 우리손에 들어왔다 보관을 잘 해야 하겠다. 안전한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최고 사령부에 보관케 하시오”라고 하여 이조실록을 최고사령부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인민들속에서15,노동당 출판, 1977년 7월호 참조).
그런데 서울에 가서 이조실록을 탈취하여 오라고 파견한 자들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조실록의 진짜원본인 강화본은 그대로 놔두고

창경원내 장서각에 있는 이조실록의 부분인 적산산본을 가져간 것이다. 이조실록의 원본이 서울대학교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 그러면 이조실록 원본이 창경원내 장서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해방후 경성대학 부속 도서관의 사서관을 지낸 장지태 선생의 말에 의하면 일제시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이관받은 규장각도서를 조선고도서라고 통칭하여 특별히 취급하면서 그 이용을 극히 제한하였다고 한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조선과중국 그리고 만주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본인 교수에 한해서 규장각도서의 이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사를 연구하는 조선학자들은 주로 장서각의 도서를 이용했다고 한다.
조선학자중 장서각의 이조실록을 이용한 학자는 <조선 경제사>의 저자 이강국과 소설 <임궐정>의 작가 홍명희였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장서각의 이조실록을 유일 원본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이유를 알만하다.
1971년이 아니면 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녹춘부

장과 인민일보의 사장을 지냈다는 거물급 이수근이라는 자가 망명귀순해 왔다고 각신문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다. 위장망명이었다는 것이 뒤에 밝혀 지만 이수근이 당국요인의 안내를 받아 서울대학교도서관에 와서 이조실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규장각사고로 안내하여 이조실록의 강화본과 태백산본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북에서는 이조실록을 번역출판했는데 남에서는 무엇했어요 “하는 것이다. 내가 미국에 다시와 북한간행의 월간지에서 이조실록에 대한 논설을 읽고 그때 이수근이 서울대도서관에 와서 이조실록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과연 진짜 이조실록 원본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나라가 그 역사를 확실하게 해 놓은 일은 국방을 강화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업이다. 내가 1972년 가을학기 이후 하버드대학교에 와서 연칭도서관에 근무할 때 일본의 역사책과 북한 간행의 역사책을 읽고 알았지만 전후 일본과 북한은 자체의 역사를 재조사하여 1970년대까지 완벽하게 자체의 역사를 정리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쨌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조실록(강화본)의 원본을 북한에 빼앗기지 않고 1.4 후퇴시 문교부장관 백락준박사의 특별한 배려로 부산에 소개되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BOSTON & WORCESTER CAMPUSES

영어를 배우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세요!
기초영어부터 이드벤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1 J-1, B1/B2 비자를 F-1으로 신분 변경

2 다른 학교로 전학 용이

3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영어 프로그램
기초반 에서 고급반 까지 다양한 레벨 제공. 공식 여름방학

- 집중 영어 프로그램: \$3,300/year
-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3,900/year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문기술을 배우는동안 F1 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게합니다.

- Customer Service: \$4,500/year
- Hospitality Industry: \$4,500/year
- Admisitrative Assistant: \$4,500/year

CSIE is accredited by Nor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NCA CASI) and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CSIE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is issued to those who qualify.



NAMU
 꿈을 키우는 부동산
 NaMuRealEstate.com

2001 Beacon Street, Ste. 101
 Boston, MA 02135
 info@NaMuRealEstate.com
617.858.NAMU (6268)

Commercial · Rental · Purchase · Sale · Residential · Rental · Purchase · Sale

NAMU REAL ESTATE은 모기지(mortgage)와
 부동산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님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렌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와 금융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골치 아픈 부동산 매매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Real Estate이 되겠습니다.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용자, 재융자,
 부채통합 용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용자,
 재융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AFC에서는 브롱코스가, NFC에서는 시호크스가 수퍼볼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3년 NFL 정규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 지구별로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지구 1위 팀들은 높은 시드를 얻어 플레이 오프 첫 주에 휴식을 취하고 홈구장의 이점을 얻기 위해, 지구 2위 팀들은 와일드 카드를 통해 플레이 오프에 진출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NFC가 AFC보다 우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어떤 팀이 수퍼볼 우승을 차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NFL 정규 시즌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 도박사들이 계산한 NFL 상위 5팀의 수퍼볼 우승 확률과 배당을 알아보자.

5위: New England Patriots
우승확률: 14/1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가 시즌을 마감하는 부상을 당한 후 치러진 첫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는 돌핀스에게 근소한 점수 차이로 패배를 당했다.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AFC 동부지구

우승과 함께 AFC 1번 시드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놓친 뼈아픈 패배였다.

그롱코스키가 견재할 때 패트리어츠는 AFC에서 브롱코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브롱코스에 비해 패트리어츠의 무게감이 떨어져 보인다. 물론 경기 결과는 플레이 오프에서 두 팀이 직접 만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4위: Carolina Panthers
우승확률: 12/1

지난 일요일은 팬더스에게 기분 좋은 날이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제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라이벌 팀인 세인트스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팬더스와 세인트스 두 팀 모두 10승 4패로 동률이 되었다.

이번 주 세인트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팬더스는 NFC 남부지구 우승과 함께 NFC 2번 시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시즌 내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수비진과 프로 데뷔 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쿼터백 캠 뉴튼이 있는 팬더스는 수퍼볼 도전 팀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3위: San Francisco 49ers
우승확률: 15/2

비록 나이너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수퍼볼 우승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10승 4패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나이너스는 지구 2위에 머물러 있다.

시즌이 막바지로 향할수록 나이너스의 강력함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쿼터백 콜린 캐퍼닉은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고, 부상에서

회복한 마이클 크래프리의 활약이 돋보인다. 나이너스는 와일드 카드를 통해 플레이 오프에 진출하지만, 1월에 나이너스를 만나고 싶은 팀은 단 한 팀도 없을 것이다.

2위: Denver Broncos
우승확률: 3/1

지난 주 브롱코스가 차저스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다. 브롱코스는 여전히 AFC를 대표해 수퍼볼에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팀으로 여겨진다.

브롱코스에는 시즌 MVP 수상이 유력한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있고, 남은 스케줄도 비교적 쉬운 상대들이다. 브롱코스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조심하며 플레이 오프를 준비해야 한다.

1위: Seattle Seahawks
우승확률: 5/2

12승 2패로 현재 NFL에서 가장 좋은 승률을 기록 중인 시호크스는 지난 주에도 자이언츠를 압도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시호크스의 놀라운 점은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탄탄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선수층도 두터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날로 성장하고 있는 쿼터백 러셀 윌슨은 자연스런 움직임에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선수다. 특히 윌슨은 홈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플레이 오프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이 기대된다.

jsi@bostonkore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 임진왜란과 무예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먼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 그리고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을 간단히 살펴 본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대마도주를 통하여 사신을 보내어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응하지 않았던 조선조정은 일본의 실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저의를 살피려고 1590년에 조선통신사(통신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를 일본에 보냈다.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달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답신에는 분명한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나라를 정벌할 것이니 길을 내어달라)는 문구가 있었는데도 상이한 보고로 조선을 건국한 이래 가장 큰 참화를 초래하였다. 서인을 대표한 황윤길은 “침략이 있을 것”이라 하였고, 동인을 대표한 김성일은 “침략의 의도가 없는데 서인들은 백성들을 동요시켜 민심을 흥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인인 허성마저 황윤길의 명견(明見)을 옹호하였으나,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동인은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되면 자신들이 잡

고 있던 정권에 예측 못할 변화를 두려워하여 김성일의 의견을 좇았다. 그리고 잦은 일본 사신들의 왕래와 유럽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일본의 침략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졌고 이에 대비를 하였지만 결과는 조선시대의 최대 사건이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과 언어와 풍속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해 4월 전쟁 경험이 풍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20만 여명의 대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20일만에 도성과 왕궁을 함락하였다. 도성이 함락되기 전에 임금 선조는 의주로 피신을 하였으며 노비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보관된 장례원과 형조를 먼저 불태웠다. 조정은 명나라에 구원병을 간청하였다. 명의 병부상서 석성(石星)의 주장으로 명은 대규모의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남해안에서 탁월한 전술로 일본의 보급선과 보충병력을 격퇴시킨 이순신과 각 지역에 일어난 의병들의 보급로 저지 및 전투활동 그리고 4만3천여 명의 명의 지원군으로 평양성까지 함락되어 조

선에 불리하였던 전세는 조명연합군과 의병, 승병들의 활약으로 침략군들을 남으로 밀어 내었다. 임진년에 일어난 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수 많은 전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행주산대첩(권률), 진주성 전투(김시민), 한산도 대첩(이순신)은 임진왜란 3대첩으로 조선의 승리전사에 길이 남아있다. 하지만 완전히 격퇴하지 못한 관계로 남아 있던 일본군은 경상도 남부지역의 해안에서 진을 치면서 전쟁은 소강상태로 들어 갔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할 때마다 강화회담을 청했고, 최소의 사상자를 원했던 명이 이에 응하면서 지루한 협상이 지속되었다. 격퇴를 주장했던 조선은 회담에서 제외되었고, 그들만의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남해안에 주둔해 있던 일본은 1597년 또 다시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 전라도를 먼저 점령하여 북상하려고 하였다. 이순신이 파직된 관계로 재해권을 손쉽게 장악한 일본은 충청도 직산까지 와서 10만이 증파된 명군과 대치하였다.

그리고 관직이 복위된 이순신이 명량해전

에서 보급선을 격침시키며 대승을 거두었고, 육지에서는 조명연합군의 활약으로 공수태세가 바뀌게 되었다. 1598년 9 - 11월에 일본군을 남으로 밀어내었고 이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그들은 이것을 극비에 부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일본함대를 대파하여 승리하였으나 아쉽게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일본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병졸들을 잃고 몇몇 지휘관들이 철수에 성공하였다.

조선은 관군과 명의 지원군 그리고 많은 의병들의 활약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지만, 7년 동안의 전란은 궁성을 포함하여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다. 수 많은 의병장과 승장(僧將)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대표적인 승장과 의병장 몇명을 무예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임진왜란때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3명의 승장은 휴정 서산대사와 유정 사명대사 그리고 기허 영규대사이다. 서산과 사명은 전란중에서 살아 남았지만, 영규대사(靈圭大師(? - 1592))는 청주성을 수복한 후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영규의 삶을 먼저 따라가 본다.

25) 임진왜란이 나기 얼마 전에 조선의 역관이 명나라 여자를 흥동가에서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석성의 부인이 되었고, 조선의 곤란을 들은 부인이 석성을 설득해 조선에 명군이 파견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설가 최인호가 쓴 '상도' 에도 있다. 주인공 임상옥이 흥동가에서 구해준 여인이 연경(청의 수도)에서 최고 갑부의 부인이 되어 임상옥이 사업상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지원해 주었다.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자식이 아프거나 허약할 때
미국 어머니들이 치킨 수프를 끓여주시듯,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좋은 설렁탕 (Beef Soup)을 만들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도가니탕
수육 족발 보쌈
삼겹살구이 돼지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

Topkins & Bevans Attorney at Law

With offices conveniently located in Waltham
Braintree and Boston: www.topkinsandbevans.com



코포 2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 필요를 도와드립니다.
한국말도 제법해요, 전화주세요!

- 개인 주택,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 임대 부동산
- 론도
- 소유주 세입자 관계
- 유언장
- 법인체
- 유한 책임
- 사업체
- 위임권

Office located at

255 Bear Hill Road, Waltham, MA 02451
Phone: 781-890-6230

150 Grossman Drive, Braintree, MA 02184
Phone: 781-849-5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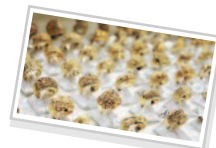
10 Newbury Street, Boston, MA 02116
Phone: 617-236-0104

857-288-8617

Global Realty P.M.

Jimmy Bok | 860-966-9364

For Sale



Nail \$ Spa Business & Building
1,500 S.F. Business
1,500 S.F. 5 Rooms Apt.
C.T.(Connecticut) East Lyme
\$ 525,000

New Building Sale
1,500+ S.F. Nail Or other
C.T.(Connecticut) East Hampton
\$ 450,000

Jewelry Store
Buyers & Sellers (Gold & Diamonds)
C.T.(Connecticut) Crystal Mall
\$ 199,000

본사는 구입부터 용자, 변호사선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상가, 세탁소 등 5만부터 50ML 까지 보유하고
E-2 투자 적극 도와드립니다.
극비에 비밀보장하며, 변호사가(본사) 신속정확하게 도와드리며,
본사가 지불합니다.

625 Center St. Manchester, CT 06040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몰(아울렛 몰)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9. No.50 December 20 2013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퇴근 후 꼬치구이에 술 한잔 어때?”

일본식 주점 ‘이또쿠’ 올스톤 입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퇴근 후 동료들과 꼬치구이와 술 한잔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올스톤에 생겼다.

일본식 주점 이또쿠(Ittoku, 대표 타히치)가 바로 그곳. 그린라인 B 라인 워렌 스트리트 역(Warren street station) 근처에 위치한 이 곳은 오픈한지 한달 됐지만,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몰려드는 발길에 저녁이면 실내가 꽉찬다.

이자카야, 일본식 실내 포장마차라고 이해하면 될까? 이 곳의 특징은 감칠맛 나는 꼬치구이와 저렴한 가격이다.

술안주로는 그만인 꼬치구이가 닭다리살, 닭모이집, 삼겹살, 소꿉바닥, 가리비살 등 다양한 소재로 나온다.

소스를 발라 구워나오는 꼬치는 종류마다 부드럽지 않으면 좋겠다. 한 꼬치당 가격은 1볼 대로, 마치 한

국의 닭꼬치를 연상케 하지만, 닭꼬치보다는 맵지 않다. 골고루 주문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꽃피우기에 ‘딱 좋다, 너~무 좋다!!’

‘이또쿠’는 꼬치구이가 대표적인 메뉴이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특징이다.

사시미를 비롯해 스시, 철판요리, 소바요리 등 정통 일본식 요리들이 즐비하다.

가격 또한 웬만해선 10불대를 넘지 않으니, 맛과 가격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안주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들려 볼만하다.

‘이또쿠’의 꼬치구이를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이고 난 후에는 ‘라면’으로 마무리해도 좋다. 뜨끈하고 개운한 쇠고기 국물에 담겨 나오는 쫄깃한 생라면, 속은 풀어 주고 입안은 깔끔하게 마무리해 준다.

‘이또쿠’는 실내 분위기 또한 부



답스럽지 않다.

음악에 대화가 묻혀 버리는 고급 레스토랑과 달리 음악은 묻히고 대화는 살아나는 곳이다. 얼핏 ‘한국의 대학가 주점도 이렇게 자유로웠지’라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오픈한 지 한달이지만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 옐프에 평점 별 4개를 받을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납득된다.

‘이또쿠’의 타히치 대표는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같은 식당이지만, 메뉴는 정말 다양하다”며 “일본식이지만, 한인들도 분명 좋아할 만한 메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또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하며, 1볼 발렛과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ckim@bostonkorea.com

업소탐방 224

이또쿠 Ittoku

1414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135, (617) 396-8420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일일목사 최병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st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6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650 Beacon St(Suite #205) Boston, MA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겨울에도 손님 많은 Nail Shop

JuJu Nails&Spa

지역: 웨슬리(Wellesley, 고급 동네, T Green-line D-line, Woodland Station 라이드 가능)
자격조건: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가능한 젊고 참신한 남, 녀
타주 라이선스(트렌스퍼 가능하신분),
기숙사 무료 제공
근무형태: 풀 타임 및 파트타임 (주 7일 오픈)
주중, 주말 및 원하시는 요일 하루도 가능함
급여: 주급제 (팁; 매상의 20% 보장제)
올리데이 페이 및 보너스 지급
지원방법: 전화통화 후 내방

(347)892-0007
(774)208-3369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아기 돌보실 분 구함(캠브리지)
풀타임, 파트타임 구함
410-274-7161

BSW 뷰티서플라이, 어시스트매니저
Full time / 알바니, 뉴욕 / 비 스폰서 가
능 518-727-6202

세탁소 카운터 구함
벨몬트
617-309-6140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알링턴 방2개 렌트(각각 \$700)
857-258-1213

드랍 앤 런드리 매매
저렴한 렌트, 넓은 주차장
978-761-0897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2인용 돌침대입니다. 전기돌침대
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수있습니
다. 판매가격 \$300 978-866-3163

N 지압사 구인
라이선스 필요없는 안전한 지압소에서
가족같이 지내실 용모단정한 지압사
구함, 주방이모도 구합니다
플로리다 지역
941-243-7664

N 미용실매매
3년째 영업중인 미용실,주변에 전문대
와 4년제 대학 있음
다민족(아시아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함,
메디칼 맛사지러미가 성업중이고 미용실
도 잘됨
425-297-3730

N 한식 Cook 하실분 구함
노스캐롤라이나 칼리 지역
주방장 및 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합니다)
919-943-3698

N 호스티스구함
클럽 레인보우
Hilo 빅아일랜드 위치
참신한 호스티스 구함, 침식제공
808-935-2000
2:00PM~2:00AM 하와이 타임
808-640-8179 @미나 마마
808-987-5546 (영)

N 런드리,알터레이션,세탁소매매
GA, 애틀랜타 지역
개인사정으로 인한 급매,꼭필요한사람
만 연락, 면적 2,800sf, 월렌트비 \$1,200
404-245-9885

N 노래방 도우미 구함
시애틀 새로 오픈한 노래방 도우미 회
사에서 같이 일하실 여성분 구함
최고 대우 보장
617-816-3311

N 금샵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10K,14,18,22,24K
금샵니다
360-473-3695

N 영지 버섯
순자연 영지버섯 팝니다. 싸게 팝니다
253-221-6393

N 현금 즉시 필요한분
특별유자플랜
플랜1: 사용중 크레딧카드 카드회사를
통해 채용자 가능(즉시 현금)
플랜 2: 6개월 이상 사용하신 채킹어카
운트 은행을(미국은행)통해 현금대출
※크레딧700점이상인 분 사업,개인용
자 15만불까지 잘 나오고 있음
소셜번호 없으신분 특별 플랜있음
모든 플랜은 합법적이며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정직과 신용으로 진행합니다.
SELA용자그룹 대표전화
855-410-1822 (시애틀 오피스),
213-604-4000 (LA)
646-634-1685 (뉴욕)
855-410-1822 (덴버, 달라스,조지아)

Boston Tax International, Inc.
www.bostontaxint.com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Daze Lee (데이즈 리)
공인회계사 / 공인관리회계사

Boston Tax International, Inc.
대표회계사

주요 담당업무:

- 각종 조세 신고 및 난부
- Payroll Service (Pay stub 관리 서비스)
- Workers Compensation 관련 자문
- 불법 체류자 조세 자문 및 사업 관련 자문
- 이중 국적 납세자의 조세 귀권 자문
- 해외 송금 및 해외 금융재산 신고 관련 자문
- 유산, 상속 증여세 관련 자문
- 자녀 학자금 신청 관련 자문
- 워킹홀리데이(WS) 혹은 주정부 과다 조세
재무 관련한 자문
- 개인 및 사업 세세 상담
- 엑스 아이디 신청 및 사인신고, 폐쇄 신고
- 사업 관련 구상과 관련된 재무 설계 상담
- 사인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토지 및 주택 구입시 내용 검토 및 자문

Providence College 경영대학원 MPA (석사)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현) Dunker 111 Community College 회계, 재무과 교수
(현)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겸임교수
(현) Massachusetts Bay Community College 겸임교수
(현) Bay State College 겸임교수
(현) Santa's Magic, Inc. 감사위원
(현) American Institute of CPAs 회원
(현) Massachusetts Society of CPAs 회원
(현)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회원
(현)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s 회원
(현) Korean American CPA Association in Greater New York 회원

상담 전화 **508) 250-6954**
P.O. Box 86, Randolph, MA 02368
Fax) 781-885-7758 / dazelee@cpa.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씨문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벨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회발전기금추진위원회	978-407-7554
국회발전기금추진위원회(내)	603-889-8201
뉴잉글랜드드콜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드콜프협회	978-902-8305
NE교육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드콜프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781-480-4778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도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연세대학교 동문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508-455-149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함마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1-2347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944-0520
라이프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매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렉싱턴 침례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턴인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617-331-1011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781-67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렘교회	978-274-2369
엘머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695
엘머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홍은명교회	978-930-6613
지구촌장로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향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806-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부영육)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형제떡집	978-975-3303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타케이(헤어디자이너)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이너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오상익	617-632-1070
허버드(브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힐링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의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엘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소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병원(병리)	203-330-8080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뉴욕생명	617-538-7851
미운환치과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소스인종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숙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주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3년 12월 9일 ~ 12월 15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왕가네 식구들
35.2%



2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노래를타고 25.2%



3위 SBS 드라마스페셜 상속자들 25%

- 4 MBC 월화특별기획 기항후 19.8%
- 4 KBS1 KBS 9시 뉴스 19.8%
- 6 MBC 일일연속극 오로라공주 18.8%
- 7 KBS2 개그콘서트 17.8%
- 8 KBS2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7.3%
- 9 MBC 주말특별기획 황금무지개 15%
- 10 MBC 무한도전 14.7%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엔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01 이별남녀 서인국, 지아
- 02 겨울 고백 성시경, 박효신, 서인국, 빅스, 여동생
- 03 Special Love 휘성, 거미
- 04 너 밖에 몰라 호린(씨스타)
- 05 그리워해요 2NE1
- 06 12월의 기적 EXO
- 07 너에게 성시경
- 08 코끝에 겨울 어반 자카파
- 09 편지 다비치
- 10 이별식탁 San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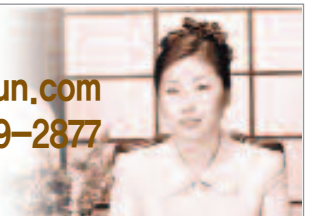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 정답은 12면에

		2		3 8		6 7
7 8 6			2 9	1		4
1 3			7 4		5	
	6 1			5	7 4 2	
4 2 3					8 1 5	
8 5 7	4				6 9	
	1		7 4			2 9
3		5	2 9		4 8 6	
2 9			8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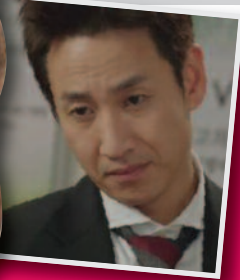
12월 22일 ~ 12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순조롭게 풀리는</p> <p>● 운수: 무엇이든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뜬을 적당히 잘 들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이므로 수입 증가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 애정: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 어디를 가나 주위를 받게 해주고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25, 28일 길일, 22, 27일 주의</p>	<p>소띠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p> <p>● 운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볼만한 때입니다. 소송문제나 사업상의 경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 나갈 것입니다. ● 금전: 자금회전이 잘 되므로 일 처리도 순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높은 수익도 기대되는 주입니다. ● 애정: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성시키기 시작하는 주입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23, 24일 길일, 22, 28일 주의</p>	<p>범띠 기름에 불붙듯이</p> <p>● 운수: 모든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니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에 있기보다는 외부로 활동을 해야 발전이 예상됩니다. ● 금전: 기다려왔던 융자문제나 채무관계의 일이 매듭지어지는 주입니다.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 애정: 다시 만나는 순간에 옛날의 열정이 되살아나 기름에 불붙듯이 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22, 27일 길일, 23, 25일 주의</p>
<p>토끼띠 금전관리를 미리 잘 해두어야</p> <p>● 운수: 작은 실수 하나도 부풀려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생활비의 지출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주입니다. 금전관리를 미리 잘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가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끌어가는 건 어려운 수학 문제 보다 더 어렵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5일 주의</p>	<p>용띠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고</p> <p>● 운수: 희망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새로운 가능성과 재능이 발견되는 주입니다. ● 금전: 자금문 제라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고 자금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점점 미묘한 감정에 빠져들 게 되고 드디어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주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6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뱀띠 여유가 돌기 시작하는</p> <p>● 운수: 매매 문제로 고심을 하던 일, 팔려고 해도 적당한 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모두 해결되는 주입니다. ● 금전: 어려웠던 금전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여유가 돌기 시작하는 주입니다. ● 애정: 언제까지 소년 소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똑바로 얼굴 들고 현실의 사랑과 대처해 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말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p> <p>● 운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오해만이 쌓여 일하는데 피곤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 금전: 내 것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도리어 피해를 볼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서운한 일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마음속에 쌓아 두지 말고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5일 주의</p>	<p>양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p> <p>● 운수: 바쁜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주입니다. ● 금전: 예상한 것에 비해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부부간의 애정은 환상 속에서 꽃 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피는 노력에 의해 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주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p>원숭이띠 뛰는 만큼 소득이 따라주고</p> <p>● 운수: 새로운 경험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사귀고 중요한 정보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분주하게 뛰는 만큼 소득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도 넓어져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하는 말마다 아! 내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드는 말을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주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닭띠 마음만 달리 먹으면</p> <p>● 운수: 오랜만에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고 회포를 풀게 됩니다. 단, 과음 폭주는 신체 리듬을 깨지게 하니 주의하세요. ● 금전: 여러 사람과 어울림으로 유대관계와 인연은 맺게 되지만 금전 지출이 많은 때입니다. ● 애정: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도 마음만 달리 먹으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p>	<p>개띠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p> <p>● 운수: 근심과 걱정은 건강의 면역을 떨어지게 하고 어두운 마음은 행복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지 마세요. 욕심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여 주위의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 애정: 스스로 생각해두 어이가 없을 만큼 결혼에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주입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26,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돼지띠 열심히 뛰어야</p> <p>● 운수: 대나무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시야를 넓히고 눈을 크게 떠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 금전: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지만 말고 기억 속에 묻힌 인연을 다시 일깨우면 의외로 행복에의 지름길이 보일 것입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p>



드라마 '미스코리아' 청춘의 슬픔 시청자 공감 이끌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드라마 '미스코리아'는 그저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었다. 1997년 경제 한파 속에 방황하고 절망하면서도, 희망을 찾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19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 2회는 백화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오지영(이연희 분)이 고등학교 선배 김형준(이선균 분)으로부터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 제안을 받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영은 형준이 자신을 천박한 여자라고 여긴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했다. 형준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한 지영은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영을 괴롭히는 부장은 희망 퇴사자를 적으라고 했다. 지영은 이에 반발했다가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 형준은 망해가는 화장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스코리아를 배출해야 하는 상황. 두차레나 지영에게 거절당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지영을 찾았다.

때마침 지영은 부장에게 모욕 섞인 말과 폭행을 당한 후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절박한 두 사람에게 미스코리아는 필요했다. 이미 지영은 미스코리아를 양산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마에



리 원장(이미숙 분)에게 제안을 받은 상황. 하지만 지영은 수많은 경쟁자를 보고 의기소침해졌다. 결국 지영은 뒤로 돌아서서 애리를 찾지 않았다. 지영은 자신의 유일한 콤플렉스인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준이 지영을 찾은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을지 여부는 이날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s.yang@bostonkorea.com



'황금무지개' 시청률 15.5%, 상승세 이어가

다. 이 같은 시청률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경쟁작의 시청률에 약 두 배 앞서는 수치로 지난 주 방송분 보다 격차를 더 크게 벌린 것이다.

방송 첫 회부터 앞서나간 '황금무지개' (손영목 극본, 강대선 연출)는 회를 거듭할수록 동시간대 타 드라마와의 격차를 조금씩 더 벌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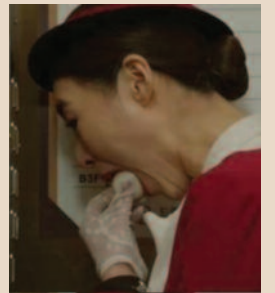
한편, 이날 방송분에서 한주(김상중)은 황금수산의 불법 쌍끌이 조업 증거 사진 필름을 계속 내어주지 않았지만 진기(조민기)가 폭력배까지 동원, 일곱 남매를 괴롭히고 고아원으로 끌고 가자 필름을 포기하는 상황이 묘사됐다.

'황금무지개'는 한 소녀가 정으로 맺어진 일곱 남매와 함께 세상의 풍파를 헤쳐 나가며 성공에 이르고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자와 사랑을 이뤄간다는 내용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55분에 방송된다.

s.yang@bostonkorea.com

'미스코리아' 이연희 계란 먹방 연기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MBC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이연희가 계란 먹방을 선보였다.



18일 첫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이연희는 엘리베이터걸 오지영 역으로 과격적인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이날 엘리베이터에서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던 오지영은 식사할 때를 놓쳤고 사람들이 내리자 구석에서 급하게 계란을 입에 넣는 일명 '계란 먹방'을 선보였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주머니에서 몰래 계란을 꺼내 그대로 입에 우겨 넣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 탄 오지영의 직장 상사 박부장(장원영 분)은 계란 냄새를 방귀 냄새로 오해해 오지영을 나무랐다. 이에 시청자들은 피곤한 직장인의 일상과 비슷하다며 크게 공감했다는 반응이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황금무지개'의 16일 방송분이 시청률 15.5%(TNmS, 서울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

천지보살

운명사주합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웨딩 비디오 예약 접수중

영상앨범 제작 서비스

50% Sale

추억은 영화다

정지된 사진도 음악과 만나면 멋진 영상앨범이 됩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 오래된 사진도 복원해 드립니다

영상촬영 / 편집전문 원도우 동영상 / 유튜브 / 인터넷 동영상
네비스 617.756.5744 ozio@hotmail.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학우스 티모빌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Qiang Ma
617-319-7367

단독주택 Single Family



\$634,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90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집
미주 살기 좋은 도시 1위
이현주 401-935-3397



\$529,900
Easton, MA
4 Beds, 2.5 Baths
조용하고 넓은 공간
New Roofing
Jason Jeon 617-642-5670



\$649,500
Burlington, MA
넓고 쾌적한 공간 3000 sf.
Fully renovated kitchen
H-Mart, Burlington Mall 근접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799,0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4001 sf.
Gorgeous colonial home
SJ Park 617-304-7001



\$389,900
Shrewsbury, MA
3 Beds, 2 Baths, 2076 sf.
좋은 가격, 넓고 실용적인 구조
Michael Yun 617-459-5985



\$550,000
Danvers, MA
4 Beds, 3 Baths, 2620 sf.
Large lot
Easy access to I-95
Jason Jeon 617-642-5670



\$8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210,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콘도 Condominium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206-734-1407

콘도 Condominium



\$149,900
Westminster, MA
3 Beds, 2 Baths, 1200 sf.
조용하고 아담한 타운 하우스
Kwang O. Kim 617-792-8615

타운 하우스



\$215,000
2 Beds, 1.5 Baths, 1152 sf.
Chelmsford, MA
업데이트된 roof, water tank
나원태 617-642-3156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리커스토어
Allston
\$1,000,000
S.J Park 617-304-7001

차이나타운 식당
건물까지 가능
보스톤에 5개 뿐인
24시간 영업 허가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황수진
617-538-697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afe	Restaurant	Business Consulting	Fish Market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245,000
Brockton, MA
Located in busy Mall
Great business opportunity
Won Ra 617-642-3156

Full Plant Cleaner	Full Plant 세탁소	Dry Cleaner	Clothing Store

\$120,000
Norwood, MA
슈퍼마켓 있는 상가내 위치
넓은 주차 공간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Jin Choi 617-877-0387

\$200,000
Middleton, MA
안정된 Full Plant 세탁소
Millde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Call for Price
North Andover, MA
년 매출 \$180,000
Price reduced
고정 손님 확보
Jin Choi 617-877-0387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Restaurant	Grocery	Restaurant

\$70,000
Concord, MA
잘 운영되는 drop store
Great business opportunity
Anna Jung 617-780-1675

\$690,000
Allston, MA
맥주, 와인, 소주
S.J Park 617-304-7001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195,000
Allston, MA
한국 식당 급매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Investment	Drop off Store	Convenience Store	울스톤 식당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25,000 Manchester, MA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건물까지 가능 플리커, 450 capacity 현 1.85M 매출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커머셜	울스톤 역 앞	APT Rental
\$179,000 Nashua, NH 잘 운영되는 Asian Restaurant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5,000 Sf. 빈자리 렌트 최고 한인 비즈니스 자리 S.J Park 617-304-7001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이 글은 본 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대통령이 하야하고 NLL과 휴전선의 철조망을 건어내고 좌경 종북이 철탑과 발전소와 어렵게 이루어 놓은 산업 시설을 폭파하고 요인들을 암살하며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지 말고 남쪽 무역 항로가 일본과 중국에 좌지우지 당하며, 우리 땅에서 우리 군대가 훈련을 하면 당연히 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폭격을 할까 두려워서 공해상으로 나가서 훈련을 해야 하는 논리가 우리의 원로 사제 입에서 나왔다.

어느 때부터 인가 종북 좌경세력이 진보라는 용어를 독식하여 진짜 진보는 진보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어찌하다가 몇몇 정치꾼(데모 앞잡이) 신부들에 의하여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정의구현이라는 말도 못하고 특정 정당과 종북 좌경의 비호 단체로 인식되게 전략을 하였다. 다 열어주고 북한이 내려오면 하느님이 없는 나라에서 신부가 장관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데모꾼 신부들은 국민들이 북한식 인권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싫어서 지옥 같은 북한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연평도 포격 3주기를 하루 앞둔 11월 22일. 타락한 전주교구내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몇몇 신

부로 조직된 정치의 맛을 들인 사제들은 지난 날의 억압받는 국민들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 준 사제들의 모습에 먹칠을 하며 이 땅에서 순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기독교인과 특히 천주교 신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시국 미사라고 하는데 강론의 내용을 보면 그 미사의 지향과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재가 있어 국민이 탄압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말인가?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발전하여 정치권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생각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으며 개인은 배려를 뒤로하고 극도의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 한데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기념일에 맞추어 하느님의 이름을 끌어 들여 미사를 봉헌하며 그 미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불쌍한 영혼에게 불명예를 주며 NLL의 무용론과 연평도 포격을 우리가 받아서 마땅하다는 주장이나 대통령이 하야를 하라는 미사를 드리며 사회의 관심과 그들의 존재를 알리려 모의와 실행을 하였으니 이들이 십계명 중 제 일 큰 계명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

라는 계명을 저질렀다. 수도자나 성직자는 특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죄와 우, 중간으로 나뉘어져 서로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가 위태로울 때 신부들이 나서서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미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고 성직자는 정치에 가담을 해서는 안되지만 인권을 위해서, 힘 없고 탄압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앞에 나서는 것은 성직자들의 할 일이라고 본다. 신품을 받고 계명을 지키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 해야 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신부의 위치에서 자나 깨나 데모꾼이 되어 데모에 나가담을 하던 신부가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 미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부를 존경하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에게 바가지로 끼얹는 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국가의 정체성 부정이나 연평도 사건과 NLL 부정 발언을 한 사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제의 신분을 지키기를 거부 하였으니 직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 단죄를 받아야 하겠다.

2013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 보스톤 연합회장 이강원



고품격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휴람
MEDICAL TOUR

'휴람'이란? 'HOSPITAL, HEALING+URAM(유람-돌아다니며 구경하다)'의 합성어로 한국의 의료와 관광을 연결해주는 의료관광 전문 회사입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휴람

해외동포들이 한국방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의료에 대해 믿을 수 있는 병원들을 선별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경제적인 가격, 질 높은 의료, 대우 받는 서비스 등 가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휴람이 제공하는 혜택
휴람의 네트워크 병원을 이용한 후 영수증 제출시, 지불한 비용의 5%를 환불해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리한 서비스로 휴람이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상담/예약
병원선별
예약 & 수술
치료
종료

임플란트/교정 보아지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피부관리 미엘르피부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피부관리/모발 장피부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피부관리/모발 미피부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탈장/지혈 기병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모발이식/기타성형 IP성형외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임플란트/교정 세순치과 서울시 중구 명동
볼출입/기타성형 강남제일성형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중합검진/진료/수술 중앙대학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흑석로 102	이비인후과 소리귀관리 서울시 광진구 능동	여성성형/요실금수술 레이디유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피부과/모발이식 강남테아피부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임플란트/교정 불이오치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지주재생프로그램 옥스치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을 통해 여행가는 마음으로 떠나세요!

여성성형 특선 **질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속(?)보다 아름답다”

미끈이 수술 (3D리타이트닝/임플란트/명품 수술)
3D리타이트닝 수술 (시술시간 1시간/회복시간 1시간)
레이디유로만의 3D리타이트닝 비법으로 1시간 만에 처너적 질 상태로 복원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임플란트 수술 (시술시간 1시간/회복시간 1시간) **250만원**
임플란트 보형물을 질 정맥 하부 근육층에 삽입/흡입/조금 탄력있는 질 상태로 복원

레이디 임플란트(명품) 수술 (시술시간 1시간/회복시간 1시간) **550만원**
각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효과 만점!!!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회복시간 1시간)
지스맛에 보형물/특수 필러를 주입하여 본인&남성 모두의 만족도 증폭
특별가 300만원 → 290만원 (3월~5월)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15분/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중년여성의 1/3이 알고 있는 요실금의 근본적인 해결

그 외 수술
음핵 수술 **100만원** / 소음수술 **200-400만원**

*병원 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람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미국문의: 617.583.2339 | 한국문의: 82.70.4141.4040

이메일문의:
ha.park@bostonkorea.com

이선영원장의 한방 칼럼



한의원 선유당 원장 이선영
617-327-1812

1208B VFW parkway
suite 201 Boston MA 02132
www.sunudang.com, info@sunudang.com

원기회복에 좋은 십전대보차 만들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가 걸린 분이 많습니다. 한 번 감기가 걸리면 매우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겨울 감기는 기침이 많이 나고 목이 아픈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감기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집에 가면 십전대보차가 주메뉴 중의 하나입니다. 차집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피로 회복과 기력 보강을 위해 많이 달여 드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십전대보탕은 한약 처방이라 질병이 있을 때 드시는 약이지만 이왕 가정에서 끓여 드신다면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십전대보탕은 대표적 보혈(補血) 처방인 사물탕과 보기(補氣) 처방인 사군자탕에 합방한 팔물탕에 황기 육계를 넣은 한약 처방입니다.

기와 혈을 함께 보하여 체내의 기혈부족으로 인한 모든 병증,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며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 호흡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 맥박이 가늘고 힘이 없는 경우,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며 눈에 건조감이 있는 경우, 허약함이 장기간 계속되어 기운이 없는 경우, 오랜 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수시로 미열이 발생하고 뼈

마디가 시리고 아프며 당기는 경우, 얼굴 색이 누렇게 뜨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경우, 걱정과 근심으로 숨차고 속이 그득하며 메스꺼운 경우 등 여러 가지 병증에 사용합니다.

다양한 허증에 이용되므로 피로하거나 기력이 없을 때 민간에서 즐겨 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전대보탕에 대한 처음 기록은 중국 송나라 의 의서인 태평해민화제국방에 처음 기록되어 있고 원나라 때 이동원의 비위론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에서 기와 혈을 모두 다스리는 처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혈을 보하는 사물탕과 기를 보하는 사군자탕에 기운을 돋우는 황기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를 추가하면 열가지 약재가 들어간 십전대보탕이 됩니다.

먼저 사물탕에 들어가는 당귀, 숙지황, 백작, 천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귀는 대표적인 보혈 약재로 여성들에게 성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혈 작용을 하여 새로운 피를 생기게 하는데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안색이 핏기가 없고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숙지황은 자음하는 약재 중 가장 강한 약성을 띄는데, 찌든찌든한 숙지황은 음기를 보해 진액

대사를 원활히 하여 진액 부족으로 인해 얼굴이 검고 마른 사람에게 좋습니다.

천궁은 어혈 제거에 좋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신체의 끝부분까지 피가 잘 돌게 합니다.

작약은 서늘하고 신맛을 띄는데 나쁜 피를 흠여지게 하고 양혈을 하며 간음을 보하고 복부 통증 완화 효과가 있으며 편두통을 가라앉힙니다.

사군자탕에는 백출 인삼 백복령 감초가 들어갑니다. 백출은 비위를 튼튼히 하여 소화흡수를 촉진하고 위 속에 정체된 수분배출을 도와주어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인삼은 대표적인 보기약으로 소화기 진액을 풍부히 하여 비장을 튼튼히 하고 폐를 이롭게 하여 호흡기를 튼튼히 합니다. 손발이 찬 사람에게 좋고 중초를 튼튼히 하여 보중익기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령은 몸 안의 수분대사를 원활히 하고 중요한 약재로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비장을 튼튼히 하여 중초를 건강하게 합니다. 복령과 같이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약재인 복신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감초는 처방에 들어가는 약들을 잘 조화시키는 약재로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합니다.

사군자탕에 들어가는 백출, 인삼, 복령, 감초처럼 보기약들은 중초의 기를 보하는 건비보중이 강하여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로 섭취한 영양분을 잘 소화시키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하여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탕과 사군자탕에 기운을 올리고 땀을 지나는 황기와 하초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육계를 넣어주면 십전대보탕이 완성됩니다.

십전대보탕은 약으로 만들 때는 각각의 약재들을 4-5g 넣고 약 두 컵을 만들어 아침 저녁 복용하는데 차로 마실 경우는 각각의 약재를 2-3g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 500g 정도에 잘 씻어 1시간 가량 불린 약재를 넣어 센불에 잠시 끓이고 그 후 약불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한방차는 무엇보다 좋은 물이 중요합니다. 수돗물로 우려낸 한방차와 생수나 정수물로 우려낸 한방차는 맛이 다릅니다.

시중 차집에서 파는 십전대보차는 너무 진하고 걸쭉합니다. 너무 오래 끓여서 불필요한 섬유질까지 다 짜내면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차로 드실 때는 더욱이 맑고 순하게 끓이고 약물만 걸러내어 마십니다.

운치있게 따뜻한 한방차를 드시면서 추운 겨울을 잊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주의 해야 할 점은 소화력이 좋지 않은 경우나 감기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픈 경우, 평소 몸에 열이 많아 갈증이 잦고 소변이 진한 경우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30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l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내게 필요한 실력 향상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지난주 스포츠동아에서 '전설 박세리에서 새 골프여제 박인비까지 15년간 이어온 돌풍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주영로 기자에게 비친 원동력은 첫째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스타 탄생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조기 전문 교육을 통해서 골프로 맞는 신체와 멘탈을 일찍 완성 했다는 것이고, 셋째로 꼽는 것이 팬들과 스폰서의 꾸준한 후원이다. 참 잘 정리해 준 것 같다. 프로의 세계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뚝 설 정도라면 보통 골퍼가 상상하기 어려운 실력의 깊이가 있는데 그런 실력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열정과 노력과 지원과 후원이 뒷바침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었다.

프로의 세계에서 뿐만아니라 취미로 골프로 하는 사람들도 골프를 어느정도의 수준으

로 잘 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지도 그리고 후원,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로 꼽는 것이 노력이다. 사람마다 노력하는 분야나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스윙을 하루에 1,000번씩 한다든지, 수년간 꾸준히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남다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만시간의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하루에 10시간을 잡더라도 천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삼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주 열심히 해서 삼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자신은 골프를 잘하도 싶는데 아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시간 투자이다.


둘째로 지도이다. 선생님이나 코치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이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고자 하는 지점은 동쪽인데 열심히 가다보니 서쪽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면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



에 있어서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듯이 골프로 시작하는 초기가 참 중요하다. 평생을 좌우하는 골프 DNA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후원이다. 일단은 시간과 자금이 뒷바침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

들도 있다. 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각자 개인의 역량이다. 자신이 극복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대목이다. 어렵지만 현명함과 열정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 후원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정서적인 골프 친구이다. 실력마저도 훌륭하다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양질의 정서적 교감이 있으면서 함께 라운딩을 할수 있는 친구이다.



SD ACADEMY
CHRISTMAS
마무리 특강

SAT/SSAT 방학 특강


- ✓ 12월 23일 (월) ~ 12월 29일 (일)
- ✓ SD가 보장하는 점수 UP Guarantee!
- ✓ 이론부터 실전까지~ 공인 기출 문제 제공!

AP/SAT Subject Review

- ✓ 과목별 필수 이론 정리 + 시험 대비 연습
- ✓ 실전 문제 위주의 학원 자체 교재 (Math/Chem)
- ✓ 학교 내신과 시험 점수를 한번에 잡자!

사립고/대학 진학 컨설팅

- ✓ 세련되고 먹히는 에세이의 정석
- ✓ 깔끔한 이력 정리 및 최종 원서 리뷰
- ✓ 학교별, 개인별 최적의 전략 제시



SD ACADEMY

614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SDAcademyonline.com | (617) 505-1852

문화와 예술 섹션에서는 무료, 유료 예술작품 전시, 연극, 강연, 예술가 소식, 예술 작품관람 팁, 뮤지엄의 가족 프로그램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Boston Common at Twilight, 1885-86, Childe Hassam, 1859-1935

52

문화/예술 컬럼니스트 장동희

Museum of Fine Arts, Boston 강사 / 보스턴 아트 스튜디오 원장
167 Corey road, suite 205, Boston MA 02135 ph) 857 756 2557
jandonghee@bostonartstudio.com / www.bostonartstudio.com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by Jan Donghee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컬럼들은 필자의 소유물로써, 본인의 허가 없이 무단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전사,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레몬트 거리에는 현재 고층 상업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당시에는 붉은 벽돌의 거주 건물들이 쪽 이어져있다. 오늘날과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도 인상적이다. 지금의 시각에서는 고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현재의 ‘강남스타일’ 과 마찬가지로 매우 세련된 옷차림이었다고 한다. 차도 위에는 오래 전 보스턴에서 사라진 지상 열차 ‘트롤리’ 가 철경 철경 지나가고 그 옆으로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점점색 마차가 따각 따각 말 발굽소리를 내며 바쁘고도 운치 있는 도시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은 황혼 녘 그림 속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보스턴의 눈 오는 풍경을 담은 해섬의 작품 두 점을 더 감상해 보자. 한 점의 작품은 훗날리는 눈에 건물들이 신비롭고 흐릿하게 가려져 ‘요정의 도시’로 제목이 붙여진 작품이고 또 다른 작품은 함박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아침, 총총걸음으로 어딘가 바빠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눈 오는 날 보스턴의 풍경은 참 로맨틱하다. 그리고 해섬의 그림 속 보스턴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물론 요즘과 같은 제설기나 방수 재질의 신발이 없었던 당시 현실은 얼음이 동동 떠있는 물 웅덩이와 눈 더미들로 축축한 신발에 늘상 로맨틱 하지만은 않았겠지만.

커피 한 잔, 예술작품 한 점

지난 주 보스턴의 진정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수북이 쌓이는 눈이 왔다. 보스토니아라면 누구나 눈에 얽힌 추억 몇 가지쯤은 있을 만큼 보스턴의 겨울엔 눈이 많이 온다. 한국에서 자라 5년 전 처음 보스턴에 왔던 나는 눈보라가 칠 때 몇 미터씩 쌓여가는 눈에 한 번 놀랐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각종 제설차가 쌓이는 눈의 속도에 뒤질새라 재빨리 눈을 치우는 광경에 또 한번 놀랐었다. 눈을 빨아당기는 장치가 설치된 제설차는 힘차게 인도나 차도에 쌓인 눈을 빨아당긴 후 연결된 파이프로 눈을 인적이 드문 쪽으로 뽑아내며 빙산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눈 더미를 만들기도 하고, 넓적한 삽이 달린 작은 제설기는 간단하게 인도 중앙을 밀고 지나가며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좁은 길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눈 벽으로 둘러 쌓인 길을 걷는 느낌이 꽤 낭만적이라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신호등에서 길을 건널 때 차도와 인도 사이 눈이 녹아 깊게 고인 물웅덩이 앞에서는

어김없이 눈 오는 날의 낭만이 깨지고 만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물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넓게 점프를 해야 하는데 웅덩이가 너무 넓어 꼭 결국은 신발이 시리도록 차가운 물에 푹 빠져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눈이 있는 풍경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소재로서 특별한 영감을 주었다. 그 중 이번 주에는 보스턴의 눈 내리는 풍경을 유화로 로맨틱하게 담은 차일드 해섬 (Childe Hassam, 1859-1935)의 작품 몇 점을 소개 하려 한다. 해섬은 보스턴 출신의 화가로 19세기 미국 인상주의 미술의 대표적 인물이다. 모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한 반면 그는 당시 빠르게 개발되던 도시의 풍경에 매료되어 보스턴, 뉴욕, 파리 등지에서 작업을 하며 다양한 모습의 도시 풍경을 남겼다.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1886년경 제작된 ‘황혼 녘 보스턴 커먼’ (Boston Common at Twilight) 으로 현재 보스

턴 박물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Gallery 226)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듯 이 그림의 배경이 된 곳은 보스턴 커먼 (Boston Common) 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스턴 커먼과 트레몬트 거리 (Tremont St.)가 만나는 곳의 풍경이다. 오늘날 보스턴 커먼은 보스턴 시내 중심, 빌딩숲 속에서 아름답고 울창한 나무와 호수를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지만 과거 보스턴 커먼은 목초

지로 지정 된 곳으로 군사훈련 혹은 교수형이 치해지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1830년경 과도한 방목으로 환경 문제가 제기되자 보스턴은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 하였고, 해섬이 이 그림을 그리던 1880년대에는 보스턴 커먼이 어느 정도 공원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오늘날의 풍경과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그림 속 풍경을 찬찬히 감상하고 싶다면 시간여행에 빠져볼 수 있다.



좌: A City Fairyland, 1886 우: Street Scene, Christmas Morning, 1892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내 초이스가 고객님들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한국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시질니빳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외과적(TMJ)
- 보철기비니어
- 수인진장아취
- 신경치료
- 3D X-Ray(CT 스캔)

1st CHOICE DENTAL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Dr. Michael Hong
Dr. Samuel Lee

LIVE TOUR IN USA

희망을 노래하는

명품 보이스

왁스 · 정동하 · 박완규

Production by Studio PAV M & C 

Music by Ha Yeongsuk Band (하영석 밴드)

2014 불후의 명곡 콘서트

“불후의 명곡” 과 “나는 가수다” 의 만남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 예매 및 판매처

Bergen Performing Arts Center(뉴저지 버겐팩)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가격: \$50, \$80, \$100, \$150,
VIP \$200

뉴욕 플라싱 셔틀버스 운행

티켓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22일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 오후 6시 20분 공영주차장 앞
선착순 100분, 왕복요금 \$20

티켓 예매 및 판매처:

교차로 신문사 718-460-0114
뚜레주르 뉴욕 맨하탄점, 뉴저지 팰팍점, 플라싱 메인점

주최: 1등 생활정보신문



레이디경향

주관:



언론후원: 교차로 협의회



코리안 버겐뉴스

벼룩시장



주간필라

특별후원: ASIANA AIRLINES

후원: KTA TOUR 코리안 투어

TOUS les JOURS AUTHENTIC BAKERY



2013 편 / 집 / 후 / 기

1호에서 50호까지는 꽤 먼 것 같았는데, 50호에서 1호를 뒤돌아보니 눈 깜짝할 새다. 올해로 50호를 마감하는 게 5번째다.

처음에는 주저했기에 했고, 다음에는 부족한 자신을 채우고자 했고

그다음에는 호기심에 했다. 그러다 욕심이 생겼다. 감동을 주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제는 한인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뉴스는 기록되어 역사로 남는다.

그동안 실어 나른 한인 1세대들의 발자취가 후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한다.

김현천 기자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들이지만 들여다보면 우리 생활을 좌우하는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로컬(Local)담당으로서 그런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보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방관자로서가 아닌 사건을 피부로 느끼는 기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서 늘 중요한 뉴스를 전하도록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새벽 기자

매년 이맘 때면 되풀이 되는 생각이 "시간 참 빠르다" 와 "올해도 아무것 한 것없이 지나가는군" 이라는 것입니다. 예년보다 유독 빠르게 그리고 바쁘게 지낸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스톤코리아와 함께한지 3년, 내년에는 더 좋은 신문으로 발전하는데 좀 더 일조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다짐해봅니다.

최성우 광고 팀장

보스톤 마라톤 폭파 사건으로 정신없이 봄이 지났고, 레드삭스의 내셔널 챔피언 얘기로 떠들썩하게 가을이 갔다.

그렇게 보낸 지난 1년, 지금 나에게 남는 말은 'Boston Strong!'

이렇게...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나에게 힘을 준다.

"보스톤 코리아 Strong, 보스톤 한인들 Strong!!!" 그리고 나에게 나직히 말해본다...

"오현숙 Strong!" ...

오현숙 기자

매년 연말이 되면 아쉬운 마음과 함께 새로 시작할 한 해에 대한 막연한 설렘과 기대감이 생긴다. 보스톤 코리아 1호와 함께 시작한 2013년도 어느새 50호 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보스톤 코리아 독자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내년에는 보다 좋은 기사로 더욱 많은 독자들을 지면에서 만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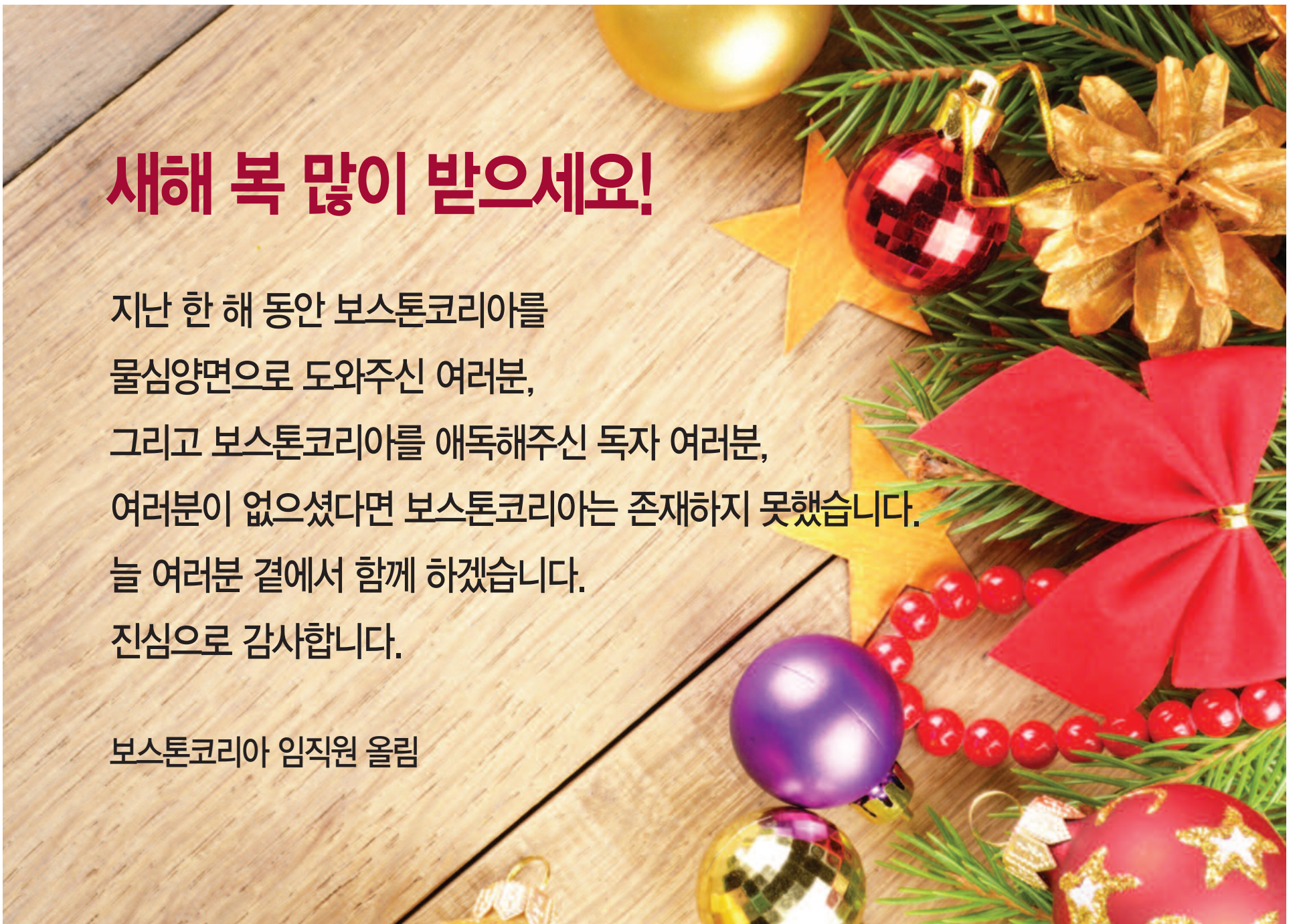
정성일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스톤코리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보스톤코리아를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셨다면 보스톤코리아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올림



불붙는 의료민영화 논란 건강권도 '빈익빈 부익부'?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철도민영화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안과 보건·의료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가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전혀 아니다며 재차 밝히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거듭 주장하며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의료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한해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도입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자회사)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이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동네의원을 망하게 해 환자들의 불편을 가져오면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게 요지다.

이들은 원격의료 허용 역시 각종 의료기기 및 통신 장비를 환자들이 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더욱 쏠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 역시 의료 민영화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미래 먹거리' 명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협의 정부성토회 후 본격 이슈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의 정부 성토회 이후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등에서 본격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의협은 지난 15일에는 전국 의사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말로는 의료계를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의 의

료의 93%를 민간이료가 지탱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민영화에도 '안녕들하십니까'
지난 10일 고려대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에도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시국을 걱정하는 이번 국민들의 움직임은 대학생들 시작으로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지난 15일부터 '의료민영화 반대'를 제목으로 한 이슈 청원에 참여한 수는 이미 6만8천여명을 넘어섰다.

대자보를 올린 한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의료민영화가 실시된다고 한다. 즉 더 이상 병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의료민영화가 실시된 한 나라는 예방수사 한 대가 10만원이 고 링거, CT 촬영만 했을 뿐인데도 900만원이라고 한다"며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이게 옳은 정책방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해명, TV공개토론 제안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사태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등복지수석은 16

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이영찬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뜻을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는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덜어주는 취지일 뿐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고 의료계에 TV를 통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이 TV공개토론을 제안한 당일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 의료단체뿐 아니라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과 손잡고 정부의 보건 의료산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행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 의료비 증가는 억지 주장
여야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18일 '국민 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 의료민영화나 영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한다"며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라 우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약국 형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국 서비스 질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 국민건강권 포기 정책
민주당은 17일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포기한 방안을 다

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병원의 영리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 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법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 고충창출을 위한 규제해소정책이라는 명목이 과연 국민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s0h@bostonkorea.com

집권 3년차 김정은 '홀로서기' 선언

장성택 숙청 후 최룡해 2인자 부상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지난 1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김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으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갑작스러운 숙청 이후 북한내 권력체계 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오던 터에 김 제1비서는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 주석단에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 대신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탈상'을 선언했다.

추모대회도 형식은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행사였으나 내용상으로는 김 제1비서에 대한 맹종과 찬양



지난 14일 장성택 처형 이후 첫 공개활동에 나선 김정은 제1비서. 좌측 두번째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으로 채워져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였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2인자로 급부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추모대회 주석단에서 김 제1비서의 바로 왼편에 앉아 한층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김 제1비서의 오른편에 앉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형식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 총정치국장이 권력 2인자임을 짐작하게 한다.

최 총정치국장은 전날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린 김 제1비서에 대한 인민군 총성맹세 모임에서는 '충신의 자손'으로서 존재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총성맹세 모임에서는 최 총정치국장뿐 아니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당시 1군단장), 리영길 총참모장(당시 5군단장) 등도 연설했지만 올해는 최 총정치국장이 단독으로 맹세문을 낭독한 점도 그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이날 추모행사에서 존재를 한껏 과시한 최 총정치국장은 향후 장성

택 처형으로 생긴 권력 공백을 빠르게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모대회에서 장성택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장성택과 가까웠던 최영림 전 내각총리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왼쪽에,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은 오른쪽 주석단에 앉았다. 당·군·내각의 의전서열에 따른 자리 배치이긴 하지만,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된 장성택의 핵심 인맥 상당수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통해 단기간에 체제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김정은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hs0h@bostonkorea.com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엔티비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TV를 구입하시면 스마트폰 및 컴퓨터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는 **TVbogo.com** 이용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엔티비 하나만 충전된 다른 한국어 케이블은 필요 없습니다

\$24.99

최대 2대까지 추가 TV당 \$9.99 2년 약정시 Tax 포함 1년 약정시 \$29.99

enjoy & TV

www.enjoyandtv.com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617.650.6656

MBC, SBS는 예능 2-4주, 드라마 5-8주 홀드백(일정기간 상영불가)기간이 있습니다. KBS와 CJ&S는 홀드백이 없지만 빠른 시청을 원하시면 권장 49-60선로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고객의 경우 권장 시청률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홀드백 폐지 기념 특별 할인

기간 | 10/21(월)~12/31/2013 대상 | 신규 고객

3개월간 **\$9.99**

엔티비가 한국 방송국과 홀드백 없는 상환 옵션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따라 신규 고객들은 3개월간 \$9.99에 홀드백 없이 TV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선택하신 옵션 \$24.99나 \$34.99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24.99: 기본과 같은 홀드백 2-4주 / 원\$34.99: 홀드백 없음

신청을 서둘러 주십시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Citizen Bank, Providence, RI

PROSPay



NO ANNUAL FEE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FREE SUPPLY(종이, 잉크)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iPhone, Android)

사업 무담보 용자 대출

저희 **PROSPay**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ALDELO
for Restaurants



ATM



Opening Hours

Monday~Friday	9:30am~9:00pm
Saturday	9:00am~9:00pm
Sunday	10:00am~8:00pm
Christmas, NewYears day	9:30am~5:00pm

릴라이어블 Market



Sale Week 12월 20일(Fri)~12월 26일(Thu)



가가야끼 햅쌀
Kagayaki (New Crop)
\$21.99/15Lbs



스키야끼 소고기
Sukiyaki Beef
\$12.99/Lbs



삼겹살
Pork Belly
\$4.99/Lb



새송이버섯
King
Oyster Mushroom
\$2.99/Pack



팽이버섯
Enoki
Mushroom
\$0.99/200g



니수이 에다마메
Nissui Edamame
\$1.49/14,10oz



오사키 게맛살
Osaki Brand
Fish Cake
\$6.99/17.6oz



아씨 쌀가루
Assi Rice Flour
\$3.99/2Lbs



아씨 찹쌀가루
Assi
Sweet Rice Flour
\$4.49/2Lbs



왕 야채 만두
Wang
Vegetable Dumpling
\$3.99/24oz



백설 튀김가루
Beksul Frying Mix
\$2.49/2.2Lbs



백설 부침가루
Pancake Mix
\$2.49/2.2Lbs



동원 참치캔
DongWon
Canned Tuna
\$7.99/4pk(Bundle)



아씨 잡채당면
Assi Grass Noodle
\$3.39/1.5Lbs



백설 핫 바삭 재래김
Beksul Saesong Laver
\$2.99/0.18oz x 8pk



진라면 (순한맛)
Jin Ramen (Mild)
\$12.99/Box



매실 원액
Measil Crude Liquid
\$13.99/16.9fl.oz



맥심 화이트 골드
Maxim White Gold
\$15.99/100Stick



스리라차 핫소스
Sriracha
Hot Chili Sauce
\$2.19/17oz



비타 코코
Vita Coco
\$2.49/500ml



아씨 단팥 호빵
Assi Cooked Red Bean Bun
\$1.49/8.99oz



죽마고우 라면스낵
Joongmago Ramyun Snack
\$1.99/360g



죽마고우 왕소라
Joongmago Wangsora
\$1.99/360g



초코하임
ChocoHeim Cookie
\$3.99/10oz(Box)



마가렛
Margaret
\$3.99/342g(Box)



릴라이어블 마켓

EBT카드 결제 받습니다

김밥, 잡채, 부침개 등 주문도 받습니다

전화 | 617-623-9620

주소 |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릴라이어블 비디오, 한국 드라마, TV쇼 DVD 대여 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압션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60-70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론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아파트(34개 유닛), 상가(14개 유닛) 건물,
모든 유닛 리스, 주차장 있음, 매매가격 \$5M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픽아님)

론드로맷 고급동네, 연매상 \$62,000, 소유자 부재, Open/Close 자동시스템

뉴햄프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전국체인,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60,000

보스톤 남쪽: 데어리퀸/오린지줄리어스, turnkey 경영, 연매상: \$300,000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아침+점심(5일) 보스톤 점심만, 연매상 \$250,000 아침 첨가할 수 있음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동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70,000 매매가 285K 소유자 은퇴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좋은 렌트

상가건물 4, 5 유닛 고급동네, 100% 수리 완료 매매가격 \$789,900

섬머빌 론드로맷 연매상 \$18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론드로맷: 연매상 \$60,000 캠프리지, 부수입! 무인 자동시스템 완비, 소유자 부재

드롭오프: 보스톤 서쪽 연매상 \$14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뉴튼지역 세탁소+셔츠 유닛, 내부수리 완료, 연매상 \$170,000+

동양식당: 연매상 \$250,000 새 시설, 학교 급매매 Any Offer 받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드롭오프+론드로맷: 연매상 \$455,000-100% 소유자부재 Working owner 매상증가 가능성



보스톤 교육원

<p>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p>섬머/윈터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p>가다언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p>아카데믹 프로그램</p> <p>SAT 1, 2 / AP 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단기 고득점 완성 • 실전 문제 중심 수업 •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p>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p>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2월 21일 ~ 31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 SAT1 / SSAT / TOEFL class • SAT2 Subject test prep • 전과목 개인 수업 가능 	<p>2015 College Proc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1 학년 • 모집기간: 2014년 2월 말까지 <p style="color: red;">최근 3년 교육현생 대학입학현황</p> <p>Harvard(2), MIT(4), Stanford(1), Oxford(1), Princeton(3), Dartmouth(4), Columbia(8), Cornell(4), Johns Hopkins(7), Uperni(2), NYU(10), Emory(9), Brown(3), Michigan(1), Georgetown(3), UC 계열(3) 등</p>
<p>경시대회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경시 준비(AMC/AIME) •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생물, 물리, 화학) • Writing/Fine Art 경시 		<p style="text-align: right;">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6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p>